

myFord

2016 SUMMER



One-day Trip with KUGA

일부러 '느리게 살기' 연습을 해야 할 정도로 요즘 시대는 바쁘고 복잡하게 돌아간다. 며칠의 여유는 꿈도 꾸기 힘들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미덕인 이때, 하루는 꽤 긴 시간이다. 튼튼하고 편안하며 연비도 좋아 삼박자를 고루 갖춘 쿠가와 함께 떠난 시승기.

Trendy & Practical, FOCUS

달리기 성능과 효율성이라는, 양립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포드가 그 일을 보기 좋게 해냈다. 3년 만에 부분 변경한 포커스 다젤 이야기다.



Go Further

VOYAGE BEYOND GENERATIONS

For over 135 years, Hartmann has defined the luxury travel experience through exquisitely crafted luggage and a strong commitment to innovation in the ever changing landscape of travel.



hartmann
SINCE 1877

7R MASTER
창립클래그립점 02 3448 5914 현대무역센터점 02 3467 8710 현대남구점점 02 3449 5389 롯데점점점 02 2143 7154 신세계점점점 02 3479 1520 AK문점점 031 8023 2125
H&M점점 02 6137 5592 코엑스HOS점 02 551 0667 신세계점점 02 310 1510 롯데점점점 02 6116 5398 롯데점점점 052 960 4606 **HARTMANN.COM**





2016년, 포드코리아의 세 가지 약속

사랑하는 포드 고객 여러분, 모두 평안하십니까?

벌써 봄을 지나 어느새 여름을 맞아 인사를 드립니다. 봄은 짧기에 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올봄은 어떠셨는지요? 찬란한 여름의 초입에서 포드코리아는 고객 여러분께 세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쉽 없이 도약하겠습니다

지난해 포드코리아는 1만358대의 판매고를 기록, 1995년 한국 진출 이래 최초로 연 1만 대 판매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을 경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익스플로러, 토러스, MKZ 등 포드와 링컨 스테디셀러들의 꾸준한 인기와 지난해 새롭게 출시한 뉴 몬데오, 올-뉴 머스탱, 올-뉴 MKX를 비롯한 신형 모델들의 선전이 그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포드 유럽의 디젤 기술력이 집약된 몬데오 디젤, 포커스 디젤, 쿡가 디젤 등을 필두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둘째,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포드는 올 초 세계적 기업 윤리 연구소인 에티스피어 인스티튜트(Ethisphere Institute)가 주관하는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World's Most Ethical Company)'에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7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고자 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드코리아 역시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자 올해 15년을 맞은 포드 환경 후원 프로그램 '포드 그랜츠', 글로벌 유방암 예방 캠페인 '워리어스 인 핑크'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안전 운전을 위한 포드의 글로벌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인 드라이빙 스킬 포 라이프(DSFL)의 국내 첫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드코리아는

DSFL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운전 문화와 안전 운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길을 선도해나가겠습니다

포드는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비전을 통해 진보한 미래 이동성을 책임지는 기업으로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기업을 넘어 급변하는 교통 환경과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혁신적 솔루션을 발굴해 소비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이동성 전문 기업이 되고자 하는 포드의 의지입니다. 포드코리아 역시 고객 여러분께 보다 편리하고 향상된 이동성을 제공하고자 업계 선도하는 다양한 첫 시도들을 단행했습니다. 업계 최초로 시행해 큰 성원을 받고 있는 포드, 링컨 전 차종 대상 5년/10만km 무상 보증 서비스와 필수 정기점검 및 소모품 교환 시 제공하는 '픽업 앤 딜리버리 서비스'가 그 예입니다. 110년 전에도 그랬듯이 포드는 잘 닦인 트랙을 따라가기보다는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먼저 달리며 세상의 움직임을 바꾸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고객 여러분과의 세 가지 약속을 지키며, 더욱 진보할 포드와

포드코리아의 2016년을 지켜봐주시시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정재희**

귀하의 모험이 더욱 완벽해집니다 2016 NEW EXPLORER



7 MILLIONS

7백만대
월드 베스트 셀링 SUV



ENGINE

NEW 2.3L 에코부스트 엔진
3.5L TiVCT V6 엔진



**ORIGINAL
TECHNOLOGY**

지형 관리 시스템 (T.M.S)
인텔리전트 4WD
뒷좌석 안전벨트 에어백
3열 파워 폴딩 시트



**NEW
TECHNOLOGY**

핸즈-프리 리프트 게이트
항상된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180도 전방 확인 카메라
220V 파워 소켓

신사 02)3444-1300	대치 02)3442-2300	서초 02)535-3800	방배 02)6929-3000	송파 02)6928-3000	노원 02)6226-1000
마포 02)6420-1000	미아 02)6355-1000	강서 02)2063-6300	동대문 02)2246-2100	영등포 02)6941-3000	구리 031)8034-1000
의정부 031)822-1000	분당 031)714-2004	일산 031)913-2200	수원 031)221-7600	평촌 031)425-2212	인천 032)832-0001
강릉 033)646-2300	원주 033)762-0040	대전 042)823-2000	천안 041)562-0007	전주 063)273-0005	광주 062)515-1010
대구 053)766-2000	포항 054)285-8899	부산영 051)758-0075	부산해운대 051)741-5114	울산 052)261-3388	창원 055)715-5000
제주 064)759-9888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XPLORER 3.5 Limited 배기량 3,496cc, 공차중량 2,240kg, 자동 6단, 복합연비 7.6km/ℓ (도시연비 6.6km/ℓ, 고속도로연비 9.4km/ℓ), 5등급, 복합 CO₂ 배출량 227g/km
EXPLORER 2.3 Limited 배기량 2,261cc, 공차중량 2,195kg, 자동 6단, 복합연비 7.9km/ℓ (도시연비 6.8km/ℓ, 고속도로연비 9.8km/ℓ), 5등급, 복합 CO₂ 배출량 215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Go Further

ford-korea.com

Contents

myFord

2016 Summer

Play with Ford

04 CEO Message

2016년, 포드코리아의 세 가지 약속

08 Ford Issue_Brilliant Smart Mobility

포드 수석 과학자 아디 싱(Adi Singh)이 전하는 포드 스마트 모빌리티의 존재 이유

10 Ford with Culture_Exciting Ford Event

보다 많은 소비자들과 소통하고자 펼쳐진 포드코리아의 특별한 이벤트를 소개한다.

12 Smart&Technology_이토록 훌륭한 포드의 효율성

효율성을 좀 더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포드의 노력은 매우 다각적이다.

13 Car Care Tip_스마트한 셀프 세차법과 드라이빙

선글라스 선택 꿀팁

여름철 셀프 세차법과 여름 드라이빙 필수품인 선글라스 선택 요령을 알아본다.

14 Focus on 1_2016 부산국제모터쇼 프리뷰

6월 2일 프레스 데이를 시작으로 3일부터 12일까지 2016 부산국제모터쇼가 열린다. 그 현장을 미리 만나보자.

16 New Ford Life_혼자서도 잘해요

얼마 전 포드는 야간 자율 주행에 성공했다. 포드 자율 주행 자동차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20 Focus on 2_Day Dream

해마다 4월 17일이면 머스탱의 생일잔치가 열린다. 머스탱을 사랑하거나 소유한 사람 누구나 참가해 하나 되는 날이다.

22 Driving 1_One-day Trip with KUGA

튼튼하고 편안하며 연비도 좋아 삼박자를 고루 갖춘 쿠가와 함께 떠난 시승기.

28 Take 5_Essence of High Tech

2016 쿠가는 주행 성능은 물론 편의성·안전성·효율성을 높이는 등 다방면에 걸쳐 SUV의 본질을 살리기 위한 첨단 기술을 집어넣었다.

30 Ford Interview 1_몬데오와 함께한 모터스포츠 아나운서 서승현

포드 몬데오와 조우한 모터스포츠 아나운서 서승현 인터뷰

34 Driving 2_Trendy & Practical, FOCUS

달리기 성능과 효율성이라는, 양립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포드가 그 일을 보기 좋게 해냈다. 3년 만에 부분 변경한 포커스 디젤 이야기다.

38 Focus on 3_오프로드 익스플로러의 매력에 빠지다

익스플로러의 진정한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포드코리아에서 '2016 딜러 트레이닝 마스터 익스피리언스' 행사를 펼쳤다.

40 Focus on 4_선인자동차 창립 20주년

국내 모든 지역을 커버하는 독보적인 서비스 네트워크와 차별화된 영업 전략을 갖춘 이들의 지난 20년을 돌아봤다.

42 Driving Course_목적하게

오프로드와 온로드를 가침없이 달리는 SUV 포드 익스플로러를 타고 와인딩 도로를 탐색했다.

48 Theme Travel with Ford_Aloha, Oahu!

포드 익스플로러와 함께 와이키키 비치에서 시작되는 해안을 따라 하와이의 심장인 오아후를 일주하다 보니 지상낙원이 따로 없다.

52 Ford Interview 2_꽃보다 이 배우, 꽃다 김다현을 만나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를 준비 중인 배우 김다현을 만났다. 이번엔 거리의 음유시인, 그랭구아르다.

16

NEW FORD LIFE

혼자서도 잘해요

얼마 전 포드는 야간 자율 주행에 성공했다. 포드 자율 주행 자동차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Life Style

56 Ford Guy_On The Beach

매력적인 몬데오와 서머 머스트 해브 아이템인 남성 선글라스, 슈즈가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조우했다.

62 Beauty_Summer Keeper

눈부신 여름을 지배하는 스킨케어 팁

66 Driving Music_Wonderful Coast Road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안도로에서 듣기 좋은 앨범을 소개한다.

67 Ford Choice_Funny Family Time

아이는 물론 어른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만한 아이템을 모았다.

68 Chef's Table_My Sweet Terreno

이토록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테레노의 주방을 책임지는 신승환 셰프를 만났다.

72 Outdoor Leports_바다, 그 푸른 매력 속으로

새로운 모험을 찾아, 울어름엔 바닷속을 탐험해보자.

74 Golf Tour_해슬리 나인브릿지

동서양 문화가 녹아든, 예술적 가치가 높은 골프 클럽.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해슬리 나인브릿지를 찾았다.

76 Class_관세를 뒤엎는 스피치, 말이 곧 무기다

프레젠테이션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통할 수 있는, 마음을 얻는 스피치의 기술을 정리해보았다.

77 Dealer News

포드의 각 딜러사별 주요 뉴스

78 Ford News

포드에서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뉴스

80 Lineup

포드 전 차종 제원 정보

82 Ford Network

전국 포드 전시장 네트워크

발행일 2016년 5월

발행처 포드코리아 마케팅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7 골든타워 18층

기획·편집 (주)엠큐브파트너스 02-548-1601 **디자인** (주)128프로젝트 02-2051-1050

인쇄 (주)미래엔 02-3475-3837

<myFord>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매거진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조용이며 실제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포드 수석 과학자 아디 싱(Adi Singh)은 자동차 커넥티비티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용자의 운전 습관과 주변 환경, 문화 등 복합적인 변수를 받아들여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포드 스마트 모빌리티의 존재 이유다.

Writer 김종우(〈탐기어〉 기자) Photographer 류창렬

Brilliant Smart Mobility



포드는 지난 3월 '포드 스마트 모빌리티(Ford Smart Mobility LLC)'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포드가 새롭게 떠오르는 모빌리티 분야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커넥티비티, 모빌리티, 자율 주행, 고객 경험, 빅데이터 등 다섯 가지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커넥티비티는 이동수단과 운전자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소통을 연구하는 분야이며, 모빌리티는 자동차를 넘어 인류가 이용하는 모든 이동수단에 대한 연구다. 자율 주행은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이슈로 떠오른 분야로 운전자의 조종 없이 자동차 스스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에 대한 연구다. 고객 경험은 종합 이동수단 솔루션인 포드 패스를 통한 연구를, 빅데이터는 글로벌 기업인 포드가 전 세계에 걸쳐 이동수단에

관련 수집한 정보를 연구하는 분야다. 이로써 모기업인 포드자동차는 자회사와의 역할 분담으로 인해 자동차 생산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다. 포드가 생각하는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해 궁금하던 찰나, 마침 포드 스마트 모빌리티에 몸담고 있는 아디 싱(Adi Singh, 수석 과학자)이 세미나 참석차 내한해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아디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항공우주학을 전공한 인재다. 팔로 알토 포드 연구 혁신 센터(Ford's Research and Innovation Center in Palo Alto)에서 여러 실험을 위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운전자와 자동차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커넥티비티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아디는 포드 스마트 모빌리티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자동차를 넘어 이동수단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라고 했다. 또 이동수단을 통해 운전자 또는 사용자의 특성과 관심사, 문화적 환경, 건강 상태 등의 정보를 종합해 접목하는 기술이라고 표현했다.**

아디의 주요 연구 분야인 커넥티비티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에 그는 "이동수단과의 커넥티비티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용자의 특성과 주변 환경 등 다양한 변수가 결합해 서로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진화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진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강조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고객 경험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 세계 수십만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포드자동차 생산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포드는 지난 113년간 자동차를 만들어왔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보유한 만큼 이들이 어우러져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예측된다. 아디 역시 이 점이 현재 강력한 라이벌인 구글이나 애플 같은 IT 업계에 맞설 수 있는 포드 스마트 모빌리티만의 강점이라고 말한다. 포드는 독자 노선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꾸준히 협업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포드 스마트 모빌리티는 아마존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과도 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 스마트 모빌리티로 인해 펼쳐질 가능성은 무한하다. 인간의 이동성에 대한 문제는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포드는 단순히 자동차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를 넘어 인간의 이동성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길 원한다. 그에 대한 포드의 첫걸음이 바로 포드 스마트 모빌리티다.

그는 말없이 나를 지켜본다

나를 가르치려 들지 않고

고민을 함께 짊어진다

내 플레이가 정상에 오를 때까지

다만, 곁에 있을 뿐이다

YOUR PRESTIGE PARTNER





고객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나는 것이다. 특목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찾아가는 이벤트로 포드가 좀 더 가까이에서 고객들을 만난다. 보다 많은 소비자와 소통하고자 펼쳐진 특별한 이벤트를 소개한다.

Editor 김민정

Exciting Ford Event



포드 디젤 전국 시승 이벤트



포드 디젤 전국 시승 이벤트

#쿠가를찾아라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영상 공모전, 소셜 캠핑 등 다양한 이색 마케팅을 선도하는 포드코리아가 지난 4월, 소셜미디어 팬들을 위한 온-오프 연계 이벤트를 펼쳤다. 2016년 뉴 쿠가와 함께 소셜 팬들을 직접 찾아가는 이벤트로, 이름하여 '쿠가를찾아라'다. 서울 시내 곳곳을 달리는 쿠가를 찾아내 행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4월 2일부터 17일까지 주말마다 가로수길, 홍대, 명동, 강남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여러 지역에 쿠가가 나타나면 인증샷을 찍어 해시태그 '#쿠가를찾아라'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 또는 포드코리아 페이스북 이벤트 포스팅에 댓글로 남기는 이벤트다. 포드는 뛰어난 기술력과 디젤엔진 자동차의 노하우로 새롭게 출시한 SUV, 2016 뉴 쿠가를 더욱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쿠가를찾아라'는 SNS 전성시대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포드코리아 노선희 홍보이사는 “더욱 폭넓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포드 유럽의 디젤 기술과 첨단 기능을 탑재하고 국내시장에서는 포드 최초의 디젤 SUV로 출시된 뉴 쿠가를 이색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SNS 채널을 기반으로 쿠가의 새로운 모습과 차량에 대한 정보를 고객들과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쿠가를찾아라'에 참가한 사람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이용권과 영화 관람권, 스타벅스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했다. 특히 1등 당첨자는 전용 기사가 지원되는 2016 뉴 쿠가를 타고 서울 시내를 드라이브하는 '쿠가 1일 체험' 기회를 얻기도 했다.

포드 디젤 전국 시승 이벤트 포드는 언제나 고객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마케팅을 중시한다. 그 일환으로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포드 디젤 전국 시승 이벤트'를 진행한다. 5월 첫째 주말부터 2016 부산국제모터쇼가 열리는 6월 둘째 주까지 전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포드를 대표하는 디젤 삼총사인 중형 세단 몬데오 디젤,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포커스 디젤, 포드코리아 최초의 디젤 SUV인 쿠가 디젤 차량을 모두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고객들은 전시된 차량을 직접 살펴보고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와 파워, 최상의 안전·편의 장치를 갖춘 포드 유럽 디젤 차량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5월 7일부터 주말마다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을 시작으로 경기도 파주(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광주광역시(유스퀘어), 대구광역시(E-World), 부산(BEXCO 옥외 전시장)에서 열린다. 특히 2016 부산국제모터쇼가 열리는 부산 BEXCO 옥외 전시장에서 6월 3일부터 7일까지(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데 시간은 모터쇼 운영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포드 디젤 전국 시승 이벤트 현장에서는 룰렛 게임, 연비 맞추기 게임 등을 통해 기념품과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풍성하게 열린다. 포드코리아 전문 세일즈 컨설턴트에게 차량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물론 구매와 관련된 친절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전시·체험 마케팅을 통해 포드코리아는 더 많은 고객에게 포드 디젤 모델을 알리고, 차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INTRODUCING 2016 NEW FOCUS DIESEL

복합연비 기준

18.1 km/ℓ
[1등급 연비]



유럽에서 탄생한 월드 베스트 셀링카

1.5 TDCi 디젤엔진 | 해치백 모델 & 세단 모델 | 자동 주차 지원 시스템 | 액티브 시티 스톱 | 문콕 방지 장치

신사	02)3444-1300	대치	02)3442-2300	서초	02)535-3800	방배	02)6929-3000	송파	02)6928-3000	노원	02)6226-1000
마포	02)6420-1000	미아	02)6355-1000	강서	02)2063-6300	동대문	02)2246-2100	영등포	02)6941-3000	구리	031)8034-1000
의정부	031)822-1000	분당	031)714-2004	일산	031)913-2200	수원	031)221-7600	평촌	031)425-2212	인천	032)832-0001
강릉	033)646-2300	원주	033)762-0040	대전	042)823-2000	천안	041)562-0007	전주	063)273-0005	광주	062)515-1010
대구	053)766-2000	포항	054)285-8899	부산	051)758-0075	부산	051)741-5114	울산	052)261-3388	창원	055)715-5000
제주	064)759-9888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2016 FOCUS DIESEL 배기량 1,499cc, 공차중량 1,470kg, 자동 6단, 복합연비 18.1km/ℓ (도시연비 16.4km/ℓ, 고속도로연비 20.8km/ℓ), 1등급, 복합 CO₂ 배출량 105g/km (오โต스타트스톱 적용 모델 기준, 구연비) ▶ 배기량 1,499cc, 공차중량 1,470kg, 자동 6단, 복합연비 18.0km/ℓ (도시연비 15.9km/ℓ, 고속도로연비 21.5km/ℓ), 1등급, 복합 CO₂ 배출량 103g/km (오โต스타트스톱 미적용 모델 기준, 신연비)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Go Further

ford-korea.com



이토록 훌륭한 포드의 효율성

터보 디젤엔진과 듀얼 클러치 기어박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모델에서 궁극의 효율성을 선보이고 있는 포드. 효율성을 좀 더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포드의 노력은 매우 다각적이다.

Writer 이병진(〈카 매거진〉수석 기자)



자동차 업계에서 효율이 화두가 된 건 이미 옛날이다. 포드 또한 뛰어난 효율성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펼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진화와 혁신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포드의 효율성 중심에는 여러 모델을 통해 선보이고 있는 파워트레인이 존재한다. 터보차저를 얹은 다양한 배기량의 디젤엔진과 듀얼 클러치 기어박스의 조합이 주인공이다. 더 많은 공기를 연소실로 투입해 출력과 연비를 높이는 최신 엔진에 출력 손실이 적고 버리고 매끈하게 반응하는 기어박스를 매치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사실 포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디젤엔진을 훌륭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2014년에는 유럽에서 이미 300만 번째 1.5L TDCi 디젤엔진을 만들기도 했다. 동급 최저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돋보이는 1.5L 디젤엔진을 시작으로 고효율과 고성능을 동시에 담보하는 2.0L 디젤까지 라인업도 다양하다.

그렇다면 국내 소개 중인 포드의 효율성 좋은 대표 모델과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 세단과 해치백으로 보디 타입을 나눠 취향 저격 중인 포커스에는 유로 6 기준을 여유롭게 통과하는 1.5L 듀라토크 TDCi 엔진이 올라갔다. 120마력의 최고 출력과 27.5kg·m의 토크를 내며 낮은 rpm부터 두툼한 토크가 터져나와 운전이 쉽고 재미있다.

훌륭한 디젤엔진과 공합을 맞추며 궁극의 효율성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주인공은 흡식 듀얼 클러치 6단 자동 기어박스다. 출력 손실을 최소화한 덕에 연비는 리터당 18km가 넘는다. 쿼가와 몬데오는 효율과 출력 성능을 성실하게 담아내는 2.0L 터보 디젤에 6단 듀얼 클러치 기어박스가 호흡을 맞추며 효율을 챙기고 있다.

포드의 황홀한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주역에는 오토 스타트/스톱 시스템도 있다. 가다 서길 반복하는 정체 구간에서 엔진을 정지해 쓸데없는 연료 소모를 막고 배기가스를 줄인다.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하면 알아서 부드럽게 엔진을 정지했다 가속페달에 발을 올리면 빠르고 매끄럽게 시동을 켜 경쾌한 풋워크를 시작한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효율성에 한몫하는 효자 아이템이다. 장거리 운전 중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며 원하는 속도로 부드럽게 정속 주행하는 이 시스템은 연비 운전을 위해 가속페달을 부드럽고 예민하게 제어해야 하는 운전자의 노력을 대신해 최상의 효율성을 만들어낸다.

액티브 그릴 셔터 또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첨단 시스템이다. 라디에이터가 위치하는 커다란 프런트 그릴에 90도로 회전하는 수평 날개를 달아 주행 상황과 차의 상태에 따라 여닫으며 라디에이터로 향하는 공기의 흐름을 단속한다. 이를 통해 열효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기역학 성능도 키운다. 차체에 부딪히고 프런트 그릴을 통해 차체로 파고드는 공기저항을 없앴으로써 연비와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다.

우리는 효율성이 트렌드인 시대에 살고 있다. 자동차 메이커 또한 효율성을 두고 한판 혈투를 펼치고 있다. 포드는 그 전장의 한복판에서 첨단 기술과 노하우로 효율성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물론 포드의 진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차량 관리의 기본, 셀프 세차 노하우

셀프 세차의 첫걸음은 세차장 검색하기다. 기본요금은 물론 온수가 잘 나오는지, 개인 용품은 사용 가능한지, 세차 베이는 몇 곳인지, 이용 후기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한다. 여름에는 뿌려둔 물이나 거품이 빨리 말라 워터 스폿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의 세차를 피하는 것이 좋다. 먼저 보닛을 열어 엔진과 디스크의 열을 충분히 식힌다. 과열된 상태에서 차가운 물을 뿌리면 타이어 휠과 브레이크 디스크의 변형이 생길 수 있다. 열을 식히는 동안 먼저 실내 청소부터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 에어컨과 진공청소기로 시트 봉재선 사이와 기어 스틱 등 실내 곳곳의 먼지를 제거한다. 우드, 유리, 플라스틱, 가죽 등 다양한 소재로 디자인한 실내는 각각의 전용 세제로 닦는 것이 좋다. 매트는 청소기로 빨아들인 후 천에 물을 묻혀 닦아낸다. 실내 청소 후 열기가 식으면 버킷에 카 샴푸를 짜놓고 물을 받아 풍성한 거품을 낸다. 그리고 고압수를 뿌려 먼지를 제거한 뒤 굳어진 오염물과 이물질을 불리는 예비 세척 단계에 진입, 본격적인 외관 세차를 시작한다. 고압수는 30cm 정도 떨어져 루프 위에서부터 아래로 쓸어내리듯 뿌린다. 다음은 다소 기술이 필요한 비누칠 단계. 도장면은 워시 미트로, 휠은 스펀지로 문지르고 자주 워시 미트를 행귀 이물질을 제거한다. 휠 부분은 휠 전용 클리너를 뿌려 분진과 철분을 깨끗이 제거한다. 여름에는 거품과 물기가 마르기 전에 재빨리 미트질을 하는 것이 좋다. 거품 세척이 끝나면 고압수로 꼼꼼히 세척한다. 고압수는 루프, 보닛, 유리, 도어, 트렁크, 타이어 휠 순으로 뿌린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물기 제거 단계. 세차가 끝나자마자 큼직한 타월로 구석구석 남아 있는 물기를 제거한다. 먼저 유리창부터 닦아 물기로 타월이 부드러워지면 차량 위에 펼친 뒤 아래쪽을 잡고 끌어내리듯이 닦는다. 마지막으로 세차장의 에어컨을 이용해 틈새 물기를 제거한다.

드라이빙 선글라스 똑똑한 선택법

햇볕이 강한 여름에 운전할 때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한다. 눈부심은 전방 시야를 좁게 만들고, 갑자기 눈이 부시면 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 강한 자외선은 각막에 상처를 내 각막염 같은 안구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하면 백내장까지 유발할 수 있다. 드라이빙을 위한 선글라스를 선택할 때는 무겁지 않은지 직접 써보고, 자외선 차단뿐 아니라 가시광선 투과율도 살펴봐야 한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높으면 외부가 잘 보이지 않고, 투과율이 낮으면 동공이 커져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20~30% 정도의 선글라스가 운전용으로 적합하다. 운전할 때는 녹색 선글라스가 자연색에 가장 가깝게 보여 편안한 시야를 만들어준다. 회색도 가시광선의 모든 파장을 흡수해 색상을 균일하고 왜곡 없이 볼 수 있게 해준다. 낮에 장시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브라운 컬러가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시야를 밝히는 효과가 있다. 날씨가 맑은 날 빨강, 파랑, 분홍, 보라 등 원색 렌즈를 끼면 사물의 색을 왜곡시켜 눈이 피로해지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반면, 흐린 날이나 야간 주행 시에는 노란색, 옐로우색 렌즈의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밝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스마트한 셀프 세차법과 드라이빙 선글라스 선택 꿀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난감한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여름철 셀프 세차법과 여름 드라이빙 필수품인 선글라스 선택 요령을 알아본다.

Editor 김민정





1



2



3



4

1 2015 서울국제모터쇼 포드 부스 전경 2,3 2015 서울국제모터쇼에 전시된 머스탱의 모습 4 2015 서울국제모터쇼 포드 부스에서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는 관람객들

포드의 진가를 만나라 2016 부산국제모터쇼 프리뷰

6월 2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3일부터 12일까지 2016 부산국제모터쇼가 열린다. 포드코리아 역시 차별화된 이벤트와 풍성한 볼거리로 관람객을 맞는다. 특히 포드 유럽의 디젤 라인업의 진가를 살펴볼 수 있는 디젤 존을 선보일 예정. 그 현장을 미리 만나보자.

Editor 강미라

가장 매력적인 선택, 포드 디젤

빛나는 여름 햇살, 눈부신 바다, 생동감 넘치는 도시! 그 밖에도 지금 부산에 가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다. 바로 2016 부산국제모터쇼가 열리기 때문. '미래의 물결, 감동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펼쳐는 이번 모터쇼는 규모가 한층 커졌다. 2014년 행사에 비해 14% 증가한 25개 브랜드가 참여하고, 전시 면적 또한 약 14% 늘어난 5만5000㎡를 자랑한다. 또 230여 대의 최신 차량이 전시될 예정. 이처럼 회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고 찾는 이도 늘고 있는 부산국제모터쇼. 이곳을 찾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자동차 업계의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보고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은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함이 클 것이다. 그런 이들에게 이번 부산국제모터쇼의 포드 부스를 찾는 것은 좋은 해답이 될 듯하다. 우선 포드는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으로 모터쇼 부스를 꾸미는 것으로 유명하다. 고객과의 교감과 그들의 경험을 중시하는 브랜드 철학 때문이다. 이번 2016 부산국제모터쇼

역시 전시 차량을 오픈하고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그러니 관람객은 포드의 진가를 마음껏 경험하기만 하면 된다. 브랜드 가치는 물론 연비, 디자인, 안정성 등 무엇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한 '디젤 존'이 가장 기대할만 하다. 디젤 존에서는 포드 유럽 디젤엔진을 탑재한 쿠파, 몬데오, 포커스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 스타일리시한 디젤 세단 몬데오와 글로벌 베스트셀링 카 포커스, 포드코리아 최초의 디젤 SUV 쿠파는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 파워와 최상의 안전편의 장치를 갖추었다. 무엇보다 실용성과 트렌디함을 출중하게 겸비했다. 이번 부산국제모터쇼에서도 디젤 존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포드 유럽 디젤 삼총사는 5월부터 서울, 경기도 파주, 광주, 대구 등을 거치며 대대적인 시승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 마지막 장소가 부산국제모터쇼가 열리는 벅스코 옥외 전시장이 될 계획이다. 실내 부스뿐 아니라 야외에서도 포드 유럽 디젤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이번 부산국제모터쇼에서 이 세 친구의

눈부신 활약을 지켜보자.

빛나는 개성을 뽐낼 포드의 어벤저스

이뿐이라. 포드에는 디젤 삼총사 외에도 어벤저스 뽐치는 개성 넘치는 친구가 많다. 디젤 존 외에도 익스플로러 존과 머스탱 존도 마련됐으니 그 존재감을 직접 확인해볼 것. 익스플로러 존은 캠핑 콘셉트로 꾸며 관람객의 모험심을 자극할 듯하다. 묵직한 안정감으로 레저 활동에 최적화한 익스플로러의 개성과 강점이 많은 이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포드가 모터쇼에 뒀다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이 차의 인기를 빼놓을 수 없다. 바로 머스탱이다. 이번에는 서킷 콘셉트의 공간에 전시된다. 검은 아스팔트, 붉은 스트라이프 패턴, 머스탱의 웅장한 엔진 소리 등이 더해져 관람객의 심장을 마구 두드릴 준비를 마쳤다. 이번 부산국제모터쇼에서는 컨버터블과 GT 2종을 만날 수 있다. 이 밖에 위엄 있는 디자인에 고성능 에코부스트 엔진을 장착한 토러스까지 총 9개 차종이 관람객을 기다린다.

지난 부산국제모터쇼에서 볼 수 없던 전혀 새로운 공간도 마련했다. 포드의 공식 라이선스를 획득해 제작한 '레고 스피드 챔피언 시리즈' 전시관이다. 최근 출시된 모델인 '머스탱 GT', 'F150 램퍼와 포드 모델 A 핫로드' 제품을 전시해 부모와 함께 모터쇼를 찾은 어린이 고객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드만의 이벤트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부스 안에서 간단한 팝콘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머스탱 스낵바', 레이싱 시뮬레이터에 탑승해 머스탱을 직접 운전하는 듯한 짜릿한 체험의 '머스탱 레이싱'이 부스에 설치된다. 이 두 가지 시설은 포드 부스에서 발행하는 자유이용권을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다. 간단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배부되는 것으로 마치 놀이동산이나 클럽에 온 듯한 재미를 준다. 이 이용권으로 삼성 노트북, 아이폰, 애플 워치 등 푸짐한 경품이 걸린 추첨 게임에도 참여할 수 있다(2016 부산국제모터쇼 프로모션은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한편 비비이들의 '미디어 댄스 퍼포먼스', 실루엣만으로 차량의 모델을 유추해야 하는 방문객 대상 퀴즈 프로그램 '복면차왕', 머스탱 키즈카에 탑승한 어린이

고객에게 폴라로이드 촬영 이벤트를 제공하는 '키즈 포토 존' 등도 마련되어 있다. 올해 부산국제모터쇼는 사륜구동 오프로드 경기, 키즈 모터쇼 특별전, 전기 자동차 시승, 오토캠핑 페스티벌, 신차 주행 체험, 자동차 영화 상영 등 체험형 행사가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벅스코뿐 아니라 부산 곳곳에서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짧은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부산 벅스코를 찾는 것은 어떨까. 포드코리아가 함께하는 2016 부산국제모터쇼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info

2016 부산국제모터쇼

기간 2016.6.3~6.12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55 BEXCO

문의 1566-1369, www.bimos.co.kr

혼자서도 잘해요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언급도 늘어났다. 거의 모든 자동차회사들이 수년 전부터 자율 주행 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포드 역시 마찬가지. 얼마 전에는 야간 자율 주행까지 성공했다. 포드의 자율 주행 자동차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Writer 이병진(카 매거진) 수석 기자)

평일 오후 6시,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가야 하는 퇴근길. 러시아워에 마음이 분주해진다. 주차장처럼 차들로 빼곡한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니 한숨부터 나온다. 가고 서길 무한 반복하는 저 길 위에서 벌일 사투의 시간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피곤해진다. 차에 오르자마자 앞차와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차가 알아서 움직이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다.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도 곁들인 후 페달에서 발을 뺀다. 앞차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고 서길 반복하고, 차선을 넘으려고 하면 차가 스스로 스티어링 휠을 돌려(잠깐이지만) 안전 운전을 보장한다. 이처럼 최근 등장하는 새 모델을 시승할 때면 빼놓지 않고

챙겨 확인하고 써보는 것이 있다. 바로 자율 주행 관련 기술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다. 마침 알파고가 바둑 왕을 이기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더불어 자동차가 혼자서도 잘 가는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한 언급도 많아졌다. 이미 거의 모든 자동차회사들은 수년 전부터 자율 주행 자동차에 과감하게 투자하며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자율 주행 관련 기술은 정점으로 치달고 있다. 시스템보다 그것을 뒷받침할 인프라 부족이 문제라는 지적이 타당한 게 지금의 상황이다. 미국의 대표 자동차 메이커인 포드 역시 자율 주행 자동차와 관련해 활발한 연구를 펼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자율 주행 자동차에 관한 특별한 뉴스를

전했다. 헤드램프를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자율 주행에 성공한 것이다. 주인공은 포드의 퓨전 하이브리드 자율 주행 연구차. 포드는 애리조나 주행 테스트장(Ford Arizona Proving Ground)에서 치른 특별한 야간 테스트를 통해 어둠 속에서 성공적으로 자율 주행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보다 현실적이고 완벽한 자율 주행 자동차의 완성에 성큼 다가선 셈이다. 이번 테스트는 포드 레이저 레이더(이하 LiDAR) 센서가 빛에 의존하는 카메라의 도움 없이 가상 운전자 소프트웨어와 힘을 모아 자율 주행에 성공한 것이라 더욱 의미 있다.



헤드램프를 켜지 않고 야간 사막 자율 주행에 성공한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 자율 주행 연구차



1



2



3

1, 2 LiDAR 센서 기술로 자율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다. 3 야간 자율 주행 테스트에서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된 야간 투시경

현재 대부분의 시스템은 레이더와 카메라, LiDAR 세 가지 모드 센서를 모두 갖춘 후에야 이상적인 자율 주행이 가능하다. 포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신호등은 물론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자율 주행에 성공, LiDAR 센서의 독립적인 기능을 입증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의 조사에 따르면, 낮보다 밤에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 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드 자율 주행 자동차 기술 책임자 짐 맥브라이드(Jim McBride)는 “LiDAR 센서의 기술로 더 이상 실험 모델이 빛의 세기 또는 도로 위 흰 선을 감지하는 카메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LiDAR 센서는 낮뿐 아니라 밤에도 원활한 자율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심장한 코멘트를 남겼다. 포드의 자율 주행 자동차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도로 정보와 표시, 지리, 지형 및 표지판, 빌딩, 나무 등 랜드마크 데이터가 축적된 고해상도 3D 지도를 사용한다. 자율 주행 자동차는 LiDAR 센서에서 나오는 파동을 이용해 3D 지도에서 자동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레이더에서 감지된 추가적 데이터가 LiDAR 센서의 정보와 융합하면서 자율 주행 자동차의 완벽한 감지 능력을 완성하게 된다. 야간의 사막 주행 테스트를 위해 포드 엔지니어들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퓨전 하이브리드 자율 주행 연구차의 내부와 외부를 모니터링했다. 엔지니어들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LiDAR 센서가 주행 중인 차의 주변에 나타나는 객자무늬의 적외선 레이저 빔 형태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했다. LiDAR 센서는 주변 환경을 보다 정확히 감지하기 위해 초당 약 280만 파동을 발사한다. 포드의 리서치 과학자이자 엔지니어인 웨인 윌리엄스(Wayne Williams)는 “차 안에서는 주행 중임을 느낄 수 있었지만 차창 밖은 칙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컴퓨터 모니터링으로 차의 주행 방향을 실시간으로 관찰한 결과, 굽은 도로를 순조롭게 주행했다”고 전했다.

포드의 자율 주행 자동차와 관련한 연구 및 개발은 10년 넘게 진행해왔다. 미국 자동차공학회가 규정한 4단계 레벨(SAE International Level 4), 즉 운전자가 운전 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완벽한 자율 주행 기술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드는 올해 안에 현재 운영 중인 자율 주행 자동차 수를 세 배 늘려 30여 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퓨전 하이브리드 자율 주행 자동차는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미시간에서 보다 활발히 시험 운영될 것이다. **자율 주행 자동차와 관련한 포드의 다각적인 노력은 커넥티비티, 모빌리티, 자율 주행, 고객 경험, 빅데이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포드 스마트 모빌리티’의 주요 일환이기도 하다.** 2014년에는 MIT는 물론 스탠퍼드 대학과 함께 미래의 자율 주행 자동차와 관련한 기술적 문제들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자율 주행 기술은 앞으로 진화할 교통수단의 변화를 제시한 ‘블루프린트 포 모빌리티’ 비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MIT와는 LiDAR 센서를 활용해 자동차가 움직이는 다른 차뿐 아니라 보행자의 위치까지 예측하는 것을 습득한 후 움직이는 물체를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동선을 계획할 수 있는지에 대해, 스탠퍼드와는 센서가 어떻게 장애물 주변을 관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활발히 진행 중인 포드의 자율 주행 자동차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최근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2015년 초에는 팔로 알토 연구혁신센터를, 2016년 3월에는 미시간 디어본 연구센터에 포드 스마트 모빌리티 유한회사를 만들었다. 그동안 훌륭히 이어온 자동차 사업과 더불어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에도 힘을 싣기로 한 것이다. 포드는 이를 통해 커넥티비티, 모빌리티, 자율 주행, 고객 경험과 빅데이터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포드의 스마트 모빌리티는 단순한 자동차회사를 넘어 차와 이동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확장 사업 모델이다. 자율 주행 자동차뿐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혁신적 기술을 만들어 삶의 질을 더 풍족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커넥티비티는 자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SYNC의 확장판인 SYNC 3 시스템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시동을 걸고 문을 여닫으며 연료량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애플링크를 통한 음성 인식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포드는 14개월 동안 사람들의 대중교통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 30개 이상의 글로벌 모빌리티 프로그램 시험을 진행했고, 몇 개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포드는 이를 통해 주차 공간에 여유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주차 예측 시스템, 바쁜 상황에서도 쉽고 빠른 주차를 보장하는 카세어링 프로그램, 필요에 따라 원하는 곳으로 차를 소환할 수 있는 다이내믹 셔플 등을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포드의 다양한 시도 중 자율 주행 자동차 분야는 보다 빠르게 발전하며 괄목할 만한 결과물을 선보이고 있다. 눈길에서의 자율 주행 테스트를 맨 처음 진행한 메이커이기도 한 포드는 앞서 말했듯 미국 전역에서 30여 대의 자율 주행 자동차를 투입, 대대적으로 시험 운영을 진행한다. 그뿐 아니라 앞으로 5년간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반자율 주행 시스템에 대한 개발 투자를 세 배로 늘릴 것이다. 포드의 자율 주행 자동차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액티브 파크 어시스턴트,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보행자 감지, 프로 트레일러 백업 보조 시스템, 차 대 차 연결 기술 등이 있다. SF 영화에서나 보던 자율 주행 자동차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현실화되고 있다. 특별하고 다양한 포드의 최신 기술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Day Dream

머스탱은 문화다. 소유와 이동의 개념을 넘어 삶의 일부다. 마치 가족과 같아서 해마다 4월 17일이면 머스탱의 생일잔치가 열린다. 머스탱을 사랑하거나 소유한 사람 누구나 참가해 하나 되는 날이다.

Writer 임유신(자동차 칼럼니스트)

미국의 유명 여배우 마릴린 먼로는 생전에 무엇을 입고 자느냐는 질문에 “샤넬 N°5만 뿌리고 잔다”는 명언을 남겼다. 단순히 향수를 구입한 게 아니라 향기와 분위기를 샀다는 뜻이다. 포드 머스탱을 산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면 “전통과 문화를 샀다”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자동차는 대부분 이동수단으로 사지만 다른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다. 수집이나 과시용으로 사기도 하고 감상이나 조립이 목적인 경우도 있다. 차를 샀는데 문화 체험이 달려오기도 한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며 수많은 마니아를 양산해내고, 그들이 커뮤니티를 이루며 거대한 추종자 그룹을 형성한 경우다. 오래되고 많이 팔린 차라고 다 이렇지는 않다. 추종 세력을 양산해내는 아이콘 기질과 카리스마를 갖춰야 한다. 이런 차는 자동차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다. 대표 모델이 바로 머스탱이다. 머스탱은 수많은 스포츠카 중 한 모델이지만 그 지위는 남다르다. 화려한 과거와 빛나는 역사가 머스탱의 비범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머스탱은 1964년에 처음 선보였다. 당시 스포츠카는

5m가 넘는 큰 차체와 V8 이상 대배기량 엔진이 특색이었다. 포드의 사업본부장 리 아이아코카는 젊은 층의 첫 차 또는 중산층의 세컨드 카로 적합한, 적절한 크기와 경쾌한 달리기 성능을 지닌 쿠페를 개발하기로 했다. 길이는 4.5m, 무게는 1100kg, 가격은 2500달러 이하 조건을 내걸었다. 드디어 매력적인 스포츠카 스타일에 네 명이 탈 수 있는 차가 탄생했다. 1964년 4월 17일, 미국 뉴욕 세계박람회에 첫선을 보인 이 차의 이름이 바로 머스탱이다. 이전에 시장을 주름잡던 스포츠카와 다른 ‘포니 카’라는 새로운 장르의 탄생이었다. 머스탱은 세계박람회 전시와 동시에 전시장에서 공식 판매를 개시했고, 하루 동안 2만2000대의 계약이 이뤄졌다. 한 해 10만 대 판매를 예상했지만, 그 목표는 석 달 만에 달성했다. 그해 40만 대가 팔릴 정도로 머스탱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출시 이후 1년 동안 70만 대 가까이 팔렸고 1년 6개월 후 100만 대를 넘어섰다. 지난 50년 동안 900만 대가 넘는 머스탱이 팔렸다. 머스탱은 발표 당시부터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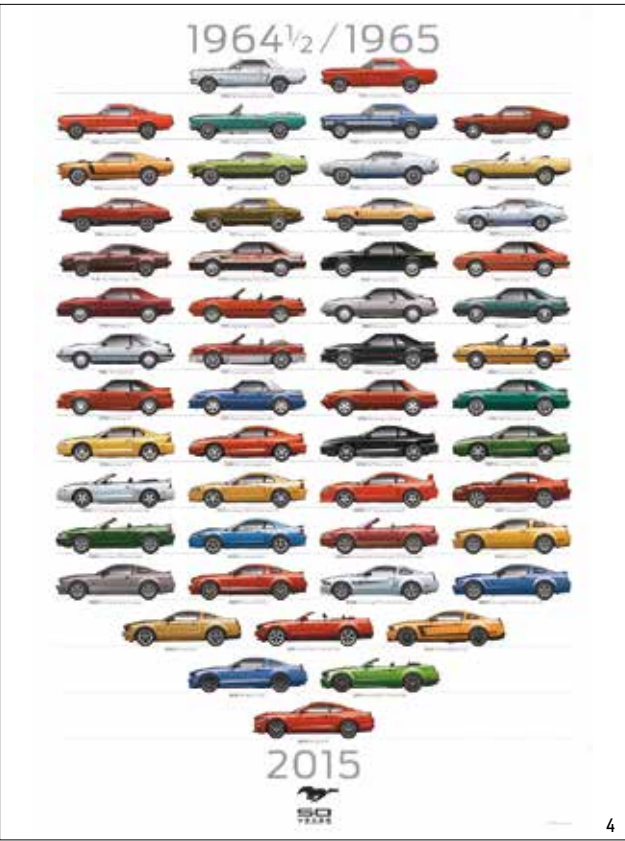


1 1964년 뉴욕박람회에서 공개된 머스탱 2 머스탱 2015년형과 머스탱 1965년형 3 머스탱 1965년형과 2015년형 실내 4 머스탱 포스터

급부상한 뒤 지금까지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카로 통한다. 머스탱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대중화다. 초창기부터 누구나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스포츠카였다.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머스탱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머스탱을 기반으로 한 문화가 형성됐다. 머스탱 출시 3년이 되던 해 이미 머스탱 관련 클럽은 500개가 넘었다. 머스탱 탄생일이 기념일처럼 여겨지는 일은 당연하다. 5년마다 머스탱 클럽 오브 아메리카(Mustang Club of America, MCA)는 대규모 MCA 이벤트를 개최해 그날을 기념한다. 머스탱 마니아들의 축제날이다. MCA 이벤트는 규모는 크고 알차지만 한번 지나면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올림픽이나 월드컵만큼 긴 시간이다. 이와 달리 ‘내셔널 머스탱 데이(National Mustang Day)’는 해마다 열리는 행사다. 머스탱 마니아와 추종자들이 직접 머스탱을 몰고 사방 곳곳에서 몰려든다. 날씨는 머스탱 탄생일인 4월 17일이다. 올해는 머스탱의 52회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곳곳에서 행사가 펼쳐졌다. 전 세계에서 200개가

넘는 클럽이 머스탱의 생일을 축하했다. 이 중에는 미국이 아닌 지역의 클럽도 20개가 넘는다. 이날은 최대 규모 자동차 커뮤니티 이벤트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둔다. 실제로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머스탱만 수천 대다. 여기에 참가하려면 우선 공식 홈페이지(www.nationalmustangday.com)에 들어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홈페이지의 주요 기능은 참가를 원하는 사람을 지역 클럽이나 활동과 연결한다. MCA가 발행하는 ‘더 머스탱 익스프레스’라는 뉴스레터는 머스탱 추종자들과 내셔널 머스탱 데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벤트 계획을 비롯해 각 클럽의 활동 내용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클럽은 유리창에 붙이는 데칼을 받는다. 개인이나 사업체는 내셔널 머스탱 데이의 스폰서가 될 수 있다. 스폰서들은 데칼에 이름이 올라가고 웹사이트 스폰서 섹션에도 게재된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스페셜 프로모션 기회도 얻는다. 내셔널 머스탱 데이는 모든 참가자에게 무료다.

내셔널 머스탱 데이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각 지역에 참가하는 그룹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 머스탱이라는 주제 하나를 던져주고 그것을 해석하고 표현하고 행동에 옮기는 방법은 각자의 개성에 따른다. 그룹 드라이빙, 컬렉션 전시, 런치 미팅, 튜닝 정보 교환,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진다. 통하는 사람들끼리 머스탱을 매개로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각 클럽 및 내셔널 머스탱 데이 홈페이지, SNS에는 이들이 보낸 이벤트 모습이 속속 올라온다. 머스탱에 대한 애정, 소유하거나 관심 있다는 사실 하나로 끈끈한 동질성을 느끼지 않고는 한날 전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로 모임을 갖기 쉽지 않은 일이다. 그만큼 머스탱은 사람들을 휘어잡는 매력을 지녔다. 자동차는 가족 같은 존재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을 같이 지낸다. 가족의 기념일을 행기는 일은 즐거운 경험이다. 머스탱 소유자라면 해마다 4월 17일 전 세계에서 열리는 생일잔치에 참가할 수 있다. 머스탱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다.



One-day Trip with KU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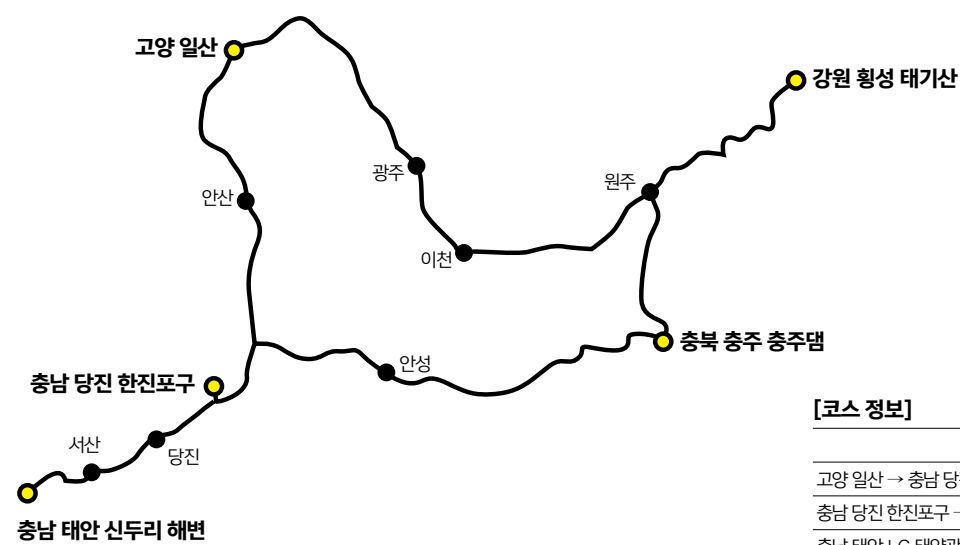
일부러 ‘느리게 살기’ 연습을 해야 할 정도로 요즘 시대는 바쁘고 복잡하게 돌아간다. 며칠의 여유는 꿈도 꾸기 힘들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미덕인 이때, 하루는 꽤 긴 시간이다. 튼튼하고 편안하며 연비도 좋아 삼박자를 고루 갖춘 쿠가와 함께 떠난 시승기.
Editor 김민정 Writer 임유신(자동차 칼럼니스트) Photographer 류창렬

요즘 사람들은 바쁘다.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 보이는데도 시간을 내기 힘들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하려면 어렵사리 시간을 조율해야 한다. 며칠 동안 쉴 수 있는 여유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급하게 서두르고 후다닥 처리하는 삶이 여유 없고 삭막하지만, 그렇게라도 자기 시간을 만들면 다행이다. 바쁘고 복잡한 이때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치 1000원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처럼, 하루는 짧은 시간으로만 여겨진다. 하지만 바빠

살아가는 데 익숙한 사람에게 하루는 꽤 긴 시간이다.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 하루의 시간이 주어졌다. 자동차를 타고 떠나는 여행이다. 우선 자동차를 골라야 한다. 당일 장거리 여행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고, 오래 달려도 편안한 차가 필요하다. 당연히 연비도 좋아야 한다. 너무 크지 않은 디젤 SUV가 제격이다. 이런 조건에 딱 들어맞는 차로 포드 쿠가를 꼽을 수 있다. 바다·호수·강·산 등 하루 동안 전국일주를 한 듯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코스를 짰다. 서둘러 출발할 때에는 막 집어 던져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트렁크 공간이 넓을수록 좋다. 쿠가의 트렁크 공간은 450L로 넉넉하다. 뒷좌석을 접으면 1650L로 커져 산더미처럼 많은 짐을 가져갈 때에도 걱정 없다. 뒷좌석은 6:4로 접히기에 공간 활용도가 높다. 트렁크 도어는 차체 아래쪽에 발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열리는 핸즈프리 기능을 갖춰 양손에 짐을 들고 있을 때 편리하다.





[코스 정보]

구간	거리(km)	연비(km/L)
고양 일산 → 충남 당진 한진포구	110	15.0
충남 당진 한진포구 → 충남 태안 신두리 해변	85	14.1
충남 태안 LG 태양광발전소 → 충북 충주 충주댐	215	14.6
충북 충주 충주댐 → 강원 횡성 태기산	105	12.8
강원 횡성 태기산 → 고양 일산	185	16.7

새벽녘 고속도로에 올랐다. 부지런히 달려야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다. 쿠파는 힘 좋은 2.0L 디젤을 품고 있다. 최고 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 40.8kg·m로 2.0L급에서는 고출력군에 속한다. 복합 연비는 1L에 13.0km(고속도로 14.6km)이다. 듀라토크 TDC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엔진은 유로 6 기준을 만족한다. 변속기는 6단 더블 클러치 방식이다. 여유롭게 속도를 올린다. 변속도 매끈하게 이뤄진다. 달릴 때에는 디젤인지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고 부드럽다. 인텔리전트 올 휠 드라이브 시스템은 0.016초 단위로 네 바퀴에 알맞은 힘을 배분한다. 고속으로 달릴 때에도 움직임이 안정적이다. 거리와 속도를 동시에 자동으로 조절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고속도로에서 꽤 쓸 만하다. 일찍부터 서두른 탓에 피로가 가지지 않았는데, 차에 주행의 일부를 맡기니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일출을 보기 위해 도착한 곳은 충남 당진 한진포구. 사해안이지만 뜨는 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서해대교를 배경으로 떠오르는 일출이 장관을 이룬다. 1년에 이글이글 떠오르는 일출을 볼 수 있는 날은 며칠 되지 않는다고 한다. 흑사나 하는 기대를 했지만 역시 안개가 자욱하다. 비록 멋진 일출은 못 봤지만, 넓은 바다가 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한진포구까지는 110km

거리이며, 쿠파 연비는 1L에 15.0km를 기록했다. 쿠파에는 성인 남자 두 명이 타고 촬영 장비를 가득 실었다. 에어컨을 자동 모드로 맞춘 상태고 이른 시간이라 차가 별로 없어 속도를 좀 낸 결과치고는 만족스럽다. 공인 고속도로 연비(14.6km/L)보다 높게 나왔다.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모래사장이 있다는 충남 태안 신두리 해변으로 향했다. 직선거리로는 멀지 않은데 돌아가야 한다. 중간에 고속도로 구간 일부를 빼고 전부 국도다. 차가 많은 도심에서는 신경 써서 달리지만 한적한 국도에서는 방심하기 쉽다. 쿠파는 다양한 안전 장비를 갖췄다. 특히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은 비좁은 국도에서 유용하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면 경고와 함께 스티어링이 자동으로 움직여 원래 차선으로 방향을 튼다(경고만 하도록 세팅할 수도 있다). 졸다가 차선을 벗어났을 때 또는 원가에 집중력을 빼앗겨 스티어링 휠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위력을 발휘한다. 이 기능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잘 활용하면 반차를 주행도 가능하다.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차선까지 맞춰 달린다. 차선 회복 능력이 우수해서 믿음직스럽게 스스로 잘 달린다. 신두리 해변으로 가는 길은 시골 국도인데도 이른 아침부터 정체 현상을 보인다. 근처 화력발전소에 출근하는 차들이다. 가다 서다를 반복한다. 이럴 때에는

액티브 시티 스톱 기능이 제 역할을 한다. 시속 30km 이하에서 앞차가 급정거할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해 추돌을 방지한다. 차가 많은 도심에서 더욱 유용하게 쓰일 기능이다. 신두리 해변에 도착했다. 모래밭을 자동차로 달릴 수 있다니 신기하다. 여행에서 자동차는 이동수단 역할에 머문다. 차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오프로드를 달린다거나 오토캠핑을 하지 않는 이상 차를 타고 자연 속에 파묻힐 일은 드물다. 신두리 해변에서는 근사한 모래사장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자연과 하나가 된다. 바다 내음을 맡으며 찰랑이는 파도를 곁에 두고 달리는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쾌하다. 한진포구에서 신두리 해변까지 85km를 달렸다. 대부분 국도다. 중간에 정체 때문에 가다 서다를 반복했지만 오토 스타트/스톱 기능 덕분에 연료 소모는 그리 많지 않았다. 시동이 꺼지고 켜지는 과정이 매끈하게 이뤄지기에 주행 느낌도 자연스럽다. 연비는 1L에 14.1km를 기록했다. 고속도로 연비가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좋게 나왔다. 다음은 호수다. 충북 충주호에 자리 잡은 충주댐으로 향했다. 200km가 넘는 꽤 긴 거리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주로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쿠파는 장거리 가족 여행을 하기에 좋은 차다. 앞뒤 모두**





공간이 넉넉하다. 시트도 편안하고 자세를 잘 잡아준다. 파노라마 루프가 달려 있어 시야도 탁 트였다. 뒷좌석에는 작은 접이식 선반이 달려 있다.

작은 물건을 올려놓을 때 유용하다. 차 안에서 무엇을 먹을 때 간이 테이블 역할도 한다. 시트는 적당히 단단해 장거리를 달라도 피곤함이 덜하다. 충주댐에 도착했다. 산과 계곡과 물이 어우러진 풍광이 시원하기 그지없다.

이곳까지 주행거리는 215km로 꽤 길었다. 거리가 길어서 빨리 도착하겠다는 마음에 속도를 제법 높였다. 스포츠 모드는 기어 레버를 S로 내리면 된다. 변속을 억제해 가속이 더욱 힘차게 이뤄진다. 추월할 때나 좀 더 경쾌하게 달리고 싶을 때 좋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바람에 에어컨을 세게 틀고 스포츠 모드에서 고속으로 달린 주행 환경에서도 연비는 1L에 14.6km를 기록했다. 딱 공인 연비에 맞게 나왔다. 바다와 호수를 봤으니 산이 빠질 수 없다. 강원도 태기산으로 머리를 돌렸다. 고속도로만 달린 탓에 이번엔 국도로 코스를 짰다. 평탄한 국도가 이어지다 황성을 지나면서부터 숲속 오르막에 굽이길이 이어지는 전형적인 강원도 길이 나타난다. 디젤의 넉넉한 토크가 진가를 발휘한다. 태기산 풍력단지를 오르는 길은 비포장길이고 포장된 곳도 상태가 좋지 않다. 차체가 높은 네 바퀴 굴림 SUV의 장점이 온전히 드러난다. 능선을 따라 달릴 때 양쪽으로 보이는 산세

풍광이 장관을 이룬다. 경치 구경도 차가 안전하게 달려야 가능한 일이다. 차체 제어장치를 포함한 어드밴스트랙은 자세 유지는 물론 핸들링 향상에도 기여한다. 굽이진 산길을 오를 때에도 안정적인 자세로 역동적으로 주파한다. 시프트 레버에 달린 수동변속 버튼을 이용하면 적극적으로 오르막과 내리막길에 대처할 수 있다. 시프트 인디케이터 기능은 기어 단수를 적절한 때에 변속하라고 알려준다.

요즘은 SUV 전성시대다. 본연의 오프로드 주파력을 유지하면서 인테리어나 승차감은 승용차 못지않기 때문이다. 두 차종을 합쳤으니 장점이 두 배인 셈이다. 쿠가 역시 이런 추세에 잘 맞는 SUV다. 요즘은 길이 잘 닦여 있어 세단형 자동차로도 웬만한 곳은 다 갈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길을 가더라도 SUV는 SUV만의 장점을 드러낸다. 태기산이 아니더라도 자동차를 타고 산길을 올라가는 코스는 전국에 여러 곳이다. 비탈진 좁고 거친 산길이 이어진다. 그런 곳을 달릴 때에는 쿠가 같은 네 바퀴 굴림 SUV가 제격이다.

충주댐에서 태기산까지 105km를 달리는 동안 연비는 12.8km가 나왔다. 험한 오르막길 구간이 제법 긴 탓에 힘을 많이 쓴 결과다. 바다와 호수, 산을 모두 둘러보니 마치 전국일주를 한 기분이다. 집으로 가는 길은 편안한마음으로 느긋하게 달렸다. 긴장이 풀려서인지 노곤해서 무리하지

않고 흐름에 맞춰 달렸다. 쿠가를 좀 더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이어졌다. 터치에 기반한 싱크 인터페이스는 기능도 다양하고 연결성도 좋다. 공조장치를 비롯해 자주 쓰는 기능은 버튼으로 따로 만들어 편의성이 높다. 계기반에 보이는 수많은 정보 역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했다. 스마트폰 메뉴처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여정의 마무리는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장식했다. 장거리 주행을 마치고 어서 내려 쉬고 싶을 때 이만큼 유용한 기능이 또 있을까. 세상 참 편해졌다.

태기산에서 일산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185km는 주로 고속도로 코스다. 제한속도 내에서 흐름에 맞춰 달리니 연비가 1L에 16.7km 나왔다. 무리하지만 않으면 어떤 조건에서도 공인 연비 이상은 나오겠다는 생각이 든다. 당일치기 여행도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 그 모습은 제각각이다. 차 타기 좋아하고 새로운 곳 보는 경험을 중시한다면 마음먹기에 따라 여러 곳을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다. 하루는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활용하기에 따라 길어지기도 한다. 이때에는 어떤 차를 타고 가느냐가 중요하다.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먼 거리를 다녀올 수 있는 차여야 한다. 연비까지 좋으면 금상첨화. 포드 쿠가는 이런 조건에 딱 들어맞는 차다.

*이 칼럼은 시승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Essence of High Tech

2016 쿠파는 첨단 기술을 가득 장착했다. 주행 성능은 물론 편의성·안전성·효율성을 높이는 등 다방면에 걸쳐 SUV의 본질을 살리기 위한 첨단 기술을 집어넣었다.

Writer 임유신(자동차 칼럼니스트)



1 Hands-free Tailgate

핸즈-프리 테일게이트는 트렁크 이용 방법에 혁신적 변화를 이뤘다. 양손 가득 짐을 들었을 때 핸즈프리 테일게이트가 위력을 발휘한다. 주머니나 가방에 시동키를 지닌 상태로 뒷범퍼 아래로 발을 밀어 넣어 가볍게 차는 동작을 취하면 테일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린다.

2 Intelligent All Wheel Drive

인텔리전트 올 휠 드라이브 시스템은 주행 조건에 따라 엔진의 힘을 손실 없이 앞뒤 구동축으로 나눈다. 첨단 토크 온 디맨드(Torque on Demand) 시스템이 구동력과 조향 안정성을 극대화한다. 운전자가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아도 차가 스스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한다. 동력을 배분하는 과정은 0.016초 단위로 이뤄진다. 순간적으로 네 바퀴에 최적의 구동력이 나뉘진다고 보면 된다. 도로에서는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승용차 못지않은 핸들링을 발휘한다. 오프로드에서는 험로를 수월하게 지나다니는 SUV 본연의 특성을 드러낸다.

3 2.0L Duratorq TDCi Diesel

승용차보다 크기가 크고 무거운 SUV는 토크가 큰 디젤엔진이 제격이다. 쿠파는 2.0L 디젤엔진을 얹는다. 포드 유럽이 생산하는 디젤은 높은 효율성과 완성도를 인정받는다. 최고 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 40.8kg·m, 이산화탄소 배출량 146g/km로 힘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특히 정속성과 빠른 응답성이 매력으로 꼽힌다. 국내 공인 복합 연비는 1L에 13.0km, 고속도로 연비는 14.6km를 달성하는 등 디젤의 장점인 높은 연비를 잘 살렸다. 변속기는 '파워 시프트'라고 부르는 포드의 6단 더블 클러치 자동변속기다. 다음 단계 기어를 미리 선택해 동력 단절 없이 최적의 시점에 빠른 속도로 변속이 이뤄진다. 빠르고 부드러운 동력 전달과 연비 향상에 기여한다.

4 Active Grille Shutter

쿠파의 그릴은 상황에 따라 열고 닫힌다. 효과적인 냉각과 소음 및 공기저항 감소 등에 유리하다. 공기저항 감소로 연비도 높아지는 효과를 얻는다. 쿠파는 이외에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여럿 마련했다. 차가 멈추면 엔진이 정지했다가 출발할 때 다시 시동이 걸리는 오토 스타트/스톱, 최적의 기어 변속 시점을 알려주는 시프트 인디케이터, 듀얼 클러치 변속기 등 전방위로 효율성 높이에 초점을 맞췄다.

5 Lane Keeping Aid

의도치 않게 차선을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졸다가 또는 다른 원가에 시선을 빼앗기는 등 이유는 많다. 그럴 때 쿠파는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보내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에 그치지 않고 스티어링에 힘을 가해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자동화 기능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갖췄다. 속도는 물론 앞차와 거리도 일정하게 유지한다. 차선 유지 기능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결합하면 운전자 조작 없이도 스스로 달릴 수 있다. 자율 주행의 기초 단계인 반자율 주행 수준의 안전 장비인 셈이다.

*차량의 일부 기능은 선택 사양입니다.

예쁜 게 다는 아니야 몬데오와 함께한 모터스포츠 아나운서 서승현

레이싱 모델로 데뷔했고, 지금은 모터스포츠 아나운서가 됐다. 이 한 줄의 이력은 그녀가 큰 키와 미모를 갖춘 데다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근성과 열정을 지닌 여성임을 의미한다. 포드 몬데오와 닮은 부분이기도 하다.

Editor 강미라 Photographer 김권석 Hair&Makeup 주민구
Cooperation
BROOKS BROTHERS(1899-1818), CELEBEE(02-2269-0511),
MASSIMO DUTTI(02-545-6172), NAMUHANA(070-4714-6480)

지난 4월, 2016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이하 슈퍼레이스)이 개막했다. 장내에는 어김없이 서승현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슈퍼레이스 중계만 6년째.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넥센타이어 스피드 레이싱, 엑스타 슈퍼 챌린지, KIC컵, 아시아 스피드 페스티벌도 진행하고 있다. 독점 수준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셔킷은 이제 상상이 안 될 정도. 사실 그녀는 2006년에도 슈퍼레이스와 함께였다. 당시엔 레이싱 모델이었기 때문이다. 모델 일을 하면서 틈틈이 리포터와 MC로도 활동했고, 모터스포츠 아나운서가 되는 기회도 왔다. 기회는 우연이었지만, 그것을 잡은 것은 순전히 노력 덕분이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사자성어를 가슴에 새긴 것도 그때였다. 서승현 아나운서가 건넌 명함에는 마이크 모양의 아이콘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다.



Q 슈퍼레이스를 중계한 지 6년째다. 감회가 남다를 듯하다.

A 다른 경기도 중계하고 있지만 처음 모터스포츠 아나운서로 데뷔한 것이 슈퍼레이스였다. 그리고 보니 레이싱 모델로 데뷔한 것도 2006년 슈퍼레이스였다. 지난 4월에 개막식이 진행됐는데, 1만5000명의 관객이 찾을 정도로 호응이 컸다. 이제 모터스포츠도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종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Q 올해는 출전하는 팀도 많아지고 경쟁도 치열하다고 들었다.

A 슈퍼레이스의 최상위 클래스가 SK ZIC6000 클래스인데, 기존엔 15명 정도의 드라이버가 출전했다면 올해 개막전에는 22명의 드라이버가 출사표를 던졌다. 베테랑 드라이버부터 새롭게 도전하는 선수들까지 다양한 경력의 선수들이 출전한 점도 경기를 더욱 흥미롭게 했다. 그래서 이번 개막전에서는 선수들의 커리어, 특징, 엔트리의 의미 같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선수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중계를 통해 관객에게 재미있게 전하려고 노력했다.

Q 스포츠에는 각본이 없다. 모터스포츠야말로 변수가 많고 상황이 빠르게 변하는데, 집중하기 어렵지 않은가?

A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긴장감은 늘 최고조다. 멘트를 하면서도 머릿속에서 다른 멘트를 생각한다. 집중하는 동안엔 피곤한지 모르다가, 경기가 끝나고 집에 갈 땐 녹초가 된다.

Q 모터스포츠 아나운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남다르다.

A 원래는 MC가 꿈이었다. 방송 쪽으로 준비를 하다 아르바이트로 모델 일을 했다. 그때 관계자의 눈에 띄어 2006년 금호타이어 소속 레이싱 모델로 본격 데뷔했다.

레이싱 모델은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한다. 드라이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하고. 당시엔 차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지만 보람을 느꼈다. 그러면서 게임 채널인 MBC GAME에 MC로 출연하거나 장내에서 선수들을 인터뷰하는 리포터로도 활동했는데, 이를 눈여겨보던 프로모터의 추천으로 모터스포츠 아나운서를 시작했다.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레이싱 모델에 대한 미련도 많았다. 고민을 많이 했지만, 꿈을 놓치기 아쉬워 결국 도전했다.

Q 준비된 도전이었나?
A 처음엔 엉망이었다. 모터스포츠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않았다. 실수도 많았다. 모터스포츠는 스타트 방식이 롤링스타트(멈추지 않고 출발하는 것)와 스탠딩스타트(멈춰다 출발하는 것)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부끄럽다.

Q 지금은 국내에서 열리는 모터스포츠 경기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다. 섭외 1순위다.

A 처음엔 모터스포츠 용어가 가장 어려웠다. 전문가가 아닌 입문자의 시각으로 용어를 이해하려 했고, 오히려 관객이 알아듣기 쉬운 중계였다는 평도 해주기 시작했다. 방법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뿐이다. 모터스포츠에 대해 알려주는 전문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라 무작정 경기 규정집을 들고 마케닉이며 선수들을 찾아가 물었다. 지금도 경기 며칠 전부터 이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선수와 경기 관련 블로그, 페이스북을 비롯해 뉴스 기사를 모두 뒤져가며 공부한다. 국내 리그, 해외 리그 가리지 않고 중계방송도 찾아보고, ‘아직 잘 모른다’는 초심을 잃지 않은 것이 매 경기에 나를 찾아주시는 비결인 것 같다.

Q 예쁜 외모만 봤을 땐 몰랐는데, 대단한 근성의 소유자인 듯하다.

A 레이싱 모델을 하다 아나운서가 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했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싶었다. 지금은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응원해주시지만. 한편으론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었다는 아쉬움도 크다. 모델협회와 모델 에이전시에서 재능 기부로 모터스포츠 교육을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레이싱 모델은 사진 찍는 것만이 주업이 아니니까. 모터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오늘 인터뷰와 함께한 포드 몬데오와 닮은 점이 많다.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에 TDCi 디젤엔진이 파워와 연비까지 갖췄으니 말이다. 외모뿐 아니라 내실까지 다졌다고 해야 할까.

A 아나운서 일을 하기 전에는 차에 대해 잘 몰랐다. 그래서 차를 고를 때 디자인을 가장 중점적으로 봤다. ‘예쁜 차’를 선호하는 편. 몬데오는 프런트는 듬직하게 느껴지고 리어 쪽은 쿠퍼처럼 날렵한 디자인이라 나처럼 차의 외형을 중시하는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또 여러 사람이 있어도 먼저 운전대를 잡을 정도로 드라이빙을 좋아하는데, 한 시간 정도 혼자 드라이빙을 하면 스트레스가 다 풀어질 정도다. 그런 내게 몬데오는 안성맞춤인 차다. 지금 타고 있는 차도 디젤 중형 세단인데, 동급인 몬데오가 연비가 훨씬 높다. 디젤엔진 특유의 시끄러움도 거슬리지 않고, 승차감도 부드럽다. 무엇보다 특유의 유려피언 감각이 느껴진다. 스펙 대비 가격도 높지 않으니 차를 바꿀 때가 되면 고려해보고 싶은 차종이다.

Q 앞으로 목표는 무엇인가.

A 지금까지 해온 시간보다 더 오래 모터스포츠 중계를 하고 싶다. 이제 서킷 내에 있는 방송실은 내 방보다 편하게 느껴진다.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방송도 진행하고 싶다. 보다 많은 이들이 모터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



2



3



4



Trendy & Practical, FOCUS

달리기 성능과 효율성이라는, 양립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포드가 그 일을 보기 좋게 해냈다. 3년 만에 부분 변경한 포커스 디젤 이야기다.

Writer 이병진(〈카매거진〉수석 기자)



참 좋은데, 말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어 아쉬운 것들이 있다. 수입차는 독일 차, 더 정확히는 독일 브랜드라는 한국 사람들의 여론몰이 탓에 꼼꼼히 살피거나 타보지도 않고 외면당하는 차들이 적지 않다. 알고보면 브랜드만 독일이고 전혀 다른 곳에서 생산하는 브랜드가 허다한데 말이다. 차 타는 게 일인 기자 입장에서선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다.

포드 포커스는 정말 좋은데, 실체가 덜 알려진 상황이 많이 아쉬운 모델 가운데 하나다. 원포드 전략의 일환으로 실제로 유럽차지만 미국 브랜드라는 이미지 탓에 국내 소비자에게는 장점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 포드는 유럽에서 만드는 훌륭한 미국 차다.

포드는 북미와 유럽에서 동시에 판매량 톱 4에 올랐다. 세계인을 상대로 모든 모델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었음을 입증한 셈이다. 포드의 쟁쟁한 모델 중 하나인 포커스는 독일 해치백의 아이콘인 골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선전 중인 특별한 모델이다. 보디 타입도 해치백과 세단 두 가지로 소개해 취향과 필요에 따라 골라 탈 수 있다. 여기, 이 시승 모델은 포커스 해치백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연비와 성능에 새로운 패키징으로 진일보한 포커스 1.5L 디젤이다. 포커스가 가솔린에서 디젤로

영역을 확장한 것은 2013년 1월이었다. 단순히 엔진만 바꾼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독일에서 완성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포커스 디젤은 출시되자마자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콤팩트한 차체에 두툼한 토크와 출중한 연비로 무장한 디젤은 운전이 쉽고 효율성이 좋으며 잘 달리고 잘 섰다. 포드는 이 여세를 몰아 몬데오와 이스케이프 후속인 쿡가에도 디젤을 올려 좋은 반응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를 단행한 포커스는 크고 작은 부분을 바꿨다. 그중 핵심은 배기량을 2.0L에서 1.5L로 낮추고 효율성과 운전 재미를 동시에 챙긴 것. 1.5 디라토크 TDCi 엔진은 강화된 환경 규제인 유로 6 기준을 넉넉히 만족시킨다. 그러면서 효율성도 무척 좋아졌다. 제원상 연비는 리터당 18.1km, 실제 연비는 공인 연비를 우습게 웃돈다. 주차장 한쪽에 신형 포드가 주차돼 있다. 날렵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이 젊은 감각을 풍겼다. 곳곳에서 풍겨나는 섬세하고 감각적인 터치가 고급스러우면서 세련미 넘친다. 커다란 오각형 프런트 그릴에 헤드램프 디자인을 가다듬어 보다 세련되고 트렌디한 인상을 만들었다. 휠 디자인도 더 감각적이고 다이내믹하게 다듬었다. 도로 주행 상황에 따라 밝기와 조사각을 스스로 조절하는 신형 어댑티브 바이 제논 헤드램프는 밤길 운전엔 보약이 될 특효 아이템이다.

걸모습과 더불어 실내 역시 유럽 포드에서 시작해 글로벌 포드의 디자인 언어로 자리 잡은 키네틱 디자인을 테마로 다른 포드 모델과 흐름을 같이한다. 직관적이며 보기 좋은 계기반과 다루기 쉬운 위치에 알맞게 자리 잡은 각종 버튼과 스위치는 인간공학적이다. 센터페시아의 실용적 구조는 누구나 금세 친숙해질 만큼 이상적이다. 구성이 복잡하지 않으면서 짜임새 있는 실내 구성은 유럽 차 특유의 실용성과 합리성을 대변하는 포드의 능력 중 하나. USB 포트와 12볼트 보조 전원 소켓, 크기 조절이 가능한 컵홀더와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통합 센터 콘솔도 마련해 실용성과 활용성을 키웠다. 앞좌석뿐 아니라 뒷좌석 공간도 제법 넉넉해 패밀리 세단으로서 손색없다. 뒷공간과 통으로 이어진 뒷좌석을 폴딩하면 어지간한 짐도 거뜬히 싣고 나를 수 있는 적재 공간이 생긴다. 뒷공간을 좀 더 넉넉히 활용하고 싶다면 높이 제약이 적은 해치백을 추천한다.

3년 만에 부분 변경된 포커스 디젤의 핵심은 앞서 말했듯, 파워트레인의 변화다. 유로 6 기준을 만족시키는 1.5L 듀라토크 TDCi 디젤엔진은 120마력을 낸다. 제원상 출력이 그리 화끈해 보이지 않는다고? 엔진 회전수를 가솔린보다 적게 사용하는 디젤엔진은 마력보다 토크가 중요하다. 1.5L 첨단 엔진의 최대 토크는 27.5kg·m. 게다가 2000이라는 낮은 rpm에서부터 터져나온다. 그러면서도 연비는 리터당 무려 18.1km. 이 놀라운 효율성은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는 동급 모델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

디젤이지만 공회전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과 진동이 가솔린엔진 뺨치게 정숙하고 안락하다. 가속페달에 힘을 싣자 경쾌한 풋워크로 속도를 높인다. 습식 듀얼 클러치 파워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가 엔진 출력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끈끈하게 타이어로 전해진다. 두툼한 토크와 직결감 좋은 기어박스가 다부지고 끈끈하게 휠로 출력을 전하며 매끈하고 부드럽게 속도를 높여간다.

안락함의 기본 위에 제법 단단하게 조율된 서스펜션이 믿음직하고 경쾌한 하체 감각을 만든다. 손에 착착 감기는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은 자유자재로 돌려도 차체는 늘 다부지고 강건하게 움직인다. 아스팔트를 끈끈하게 물고 늘어지는 탁월한 로드홀딩 능력 덕에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아나가며 특별한 운전 재미에 빠지기 시작한다. 서스펜션은 도로의 잔진동을 적절히 흡수한 뒤 운전자에게는 필요한 정보만 걸러내 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불규칙한 도로에서도 승차감과 안정적인 움직임을 동시에 풀어낸다. 물수록 신뢰가 쌓이고 운전 재미는 커진다.

시승 시간이 길어질수록 1.5L 듀라토크 엔진은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 가속페달에 힘을 실으면 딱 그만큼씩 반응하며 기대에 부응했다. 출력이 모자라거나 답답한 느낌은 없다. 물론 배기량 높은 고성능차의 비범하고 화끈한 움직임과 비교해선 안 된다. 1.5L 배기량을 감안했을 때 전혀 아쉽지 않고 어디서든 주눅 들지 않아도 될 만큼의 능력을 갖췄다. 가속페달에 언제나 경쾌하게 반응하고 꾸준히 속도를 높이며 안정적으로 잘 달렸다.

변속 타이밍을 낮춰 rpm을 좀 더 적극적으로 쓰는 스포츠 모드에서는 보다 공격적으로 속도를 지배한다. 물론 수동 모드도 준비했다. 변속은 기어 노브에 달린 버튼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좀 더 재미있고 적극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을 위해 스티어링 휠 뒤에 패들 시프트가 자리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버튼 하나로 빠르고 직관적으로 기어를 갖고 노는 맛도 제법 신선하고 재미있다.

단속 구간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다. 정해진 속도 내에서 앞차와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알아서 달리는 기능이다. 최근 새 모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능이지만 이 급에서는 거의 유일한 고급 기능이다. 스티어링 휠만 잡고 유유히 달리는 포커스 안에서 고급차의 여유로움을 만끽한다. 포커스의 사치스러운 기능은 다양하다.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를 보내고 초보자를 위해 언덕에서 뒤로 밀려날 수 있는 사고도 막아준다. 전방 장애물을 미리 감지한 뒤 자동으로 브레이킹해 충돌을 막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액티브 시티 스톱도 품었다. 음성 인식으로 거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마이 포드 싱크 또한 스마트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다. 생각보다 다루기 쉬워 조금만 익숙해지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을 기능이다.

‘연비 강패’ 포커스 디젤을 이틀 동안 열심히 몰았다. 연비를 고려한 운전은 결코 아니었다. 테스트를 위해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했고, 퇴근길 정체 구간도 통과했다. 물론 심야의 한적한 도로도 유유자적 누볐다. 그래서 얻어낸 트립컴퓨터상 실제 연비는 리터당 약 19km. 평소 내 차를 몰듯 조금만 더 부드럽게 몰았다면 리터당 20km를 훌쩍 넘기는 건 어렵지 않을 듯하다.

동급 최고 수준의 실연비, 아쉬울 것 없는 드라이빙 퍼포먼스, 트렌디한 디자인과 경쟁력 넘치는 상품성, 수준 높은 마감재와 치밀하고 꼼꼼한 조립 품질, 만족스러운 공간 활용성과 다양한 첨단 편의 장치를 품은 신형 포커스 디젤. 이 녀석에게는 팔방미인이란 애칭이 제격이다. 군중심리에 휘말려 누구나 타고 다니는 평범한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더불어 부디 포커스 디젤을 꼭 한 번 시승해보길. 더도 말고 딱 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 칼럼은 시승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16 Dealer Training Master Experience

오프로드 익스플로러의 매력에 빠지다

익스플로러의 진정한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포드코리아에서 ‘2016 딜러 트레이닝 마스터 익스피리언스’ 행사를 펼쳤다. 비가 내리는 강원도 일대의 오프로드 코스를 익스플로러들이 내달렸다. 자갈이 깔린 오르막길과 진흙으로 미끄러운 내리막길, 극한의 오프로드에서 익스플로러는 진가를 발휘했다.

Writer 황욱익(자동차 칼럼니스트)



익스플로러의 진정한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포드코리아에서 ‘2016 딜러 트레이닝 마스터 익스피리언스’ 행사를 펼쳤다. 비가 내리는 강원도 일대의 오프로드 코스를 익스플로러들이 내달렸다. 자갈이 깔린 오르막길과 진흙으로 미끄러운 내리막길, 극한의 오프로드에서 익스플로러는 진가를 발휘했다. 익스플로러는 1990년 출시 이후 약 700만 대가 판매된 포드의 간판 SUV이자 효자 모델이다. 넓은 실내 공간과 다양한 구성을 갖춘 익스플로러의 인기는 21세기인 지금도 꾸준하다. 이는 한국에서도 유호한 이야기다. 익스플로러의 진정한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포드코리아의 에이전트들이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집결 장소에 속속 모여들었다. 지난 5월 10일과 11일에 걸쳐 진행된 2016 딜러 트레이닝 마스터 익스피리언스(이하 2016 DTM)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세일즈 최전선에 있는 딜러들 중에서도 트레이너 자격을 갖춘 각 지점 에이전트들을 위한

이번 행사는 비가 내리는 강원도 일대를 누비는 일정이 준비되어 있었다. 익스플로러의 다재다능한 매력은 이미 잘 알려진 터. 넓은 적재 공간과 쾌적한 실내 등 상투적인 특징 대신 포드코리아가 이번에 선택한 키워드는 거친 주행을 즐길 수 있는 오프로드. 다재다능함에 다양한 편의성과 안전 장비를 두루 갖춘 익스플로러의 숨은 재능을 찾기 위함이다.

전방 카메라, 힐 디센트 컨트롤로 비포장 정복
동호 해변에 차린 베이스캠프를 출발해 총 72km 구간을 주파하는 주행 코스는 강원도의 빼어난 경관이 펼쳐지는 도로와 거친 임산도로가 포함되었다. 2016 DTM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전체 주행 일정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오프로드 코스다. 남성적이고 야성적인 향취 가득한 익스플로러의 장점이 두드러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구불구불한 국도와 고속화도로에서 익스플로러의 움직임은 매우 가볍다. 새로운 2.3L

에코부스트 엔진을 비롯해 1000분의 1초 단위로 지형 조건을 파악하는 지형 관리 시스템(Terrain Management System)이 적용된 인텔리전트 4WD는 어떤 상황에서도 매끄럽게 움직인다. 포드가 자랑하는 지형 관리 시스템(Terrain Management System)은 반응 속도가 빠르기로 유명하다. SUV에 필수라 불리는 4WD 시스템은 최적의 구동력을 전달하는데 비가 내려 미끄러운 도로나 매끄럽지 못한 노면에서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다. 일반적으로 구간을 빠져나와 진입한 곳은 본격적인 오프로드 구간. 비가 내려 바닥은 미끄럽고,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오지에서 익스플로러는 새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울퉁불퉁한 도로에서도 노면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으며, 네 바퀴로 전달되는 토크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한다. 특히 고저차가 심하고 노면을 직접 확인할 수 없을 때, 전방 카메라는 운전자의 안전을 유도한다. 저속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방



선인자동차 부산 수영 전시장 김동욱

선인자동차 수원 전시장 유정민

헤인모터스 마포 전시장 강태웅



카메라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자의 눈이 되어준다. 오프로드는 오르막보다 내리막이 훨씬 위험하다. 더구나 2016 DTM이 진행된 그날처럼 비가 꾸준히 내리는 상황에서 비포장은 얼음판처럼 미끄럽다. 각 딜러의 에이사가 모인 만큼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체크포인트에서 그들은 힐 디센트 컨트롤의 편리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크고 작은 자갈이 깔려 있고 진창으로 변한 미끄러운 내리막길에서도 힐 디센트 컨트롤은 액셀이나 브레이크 조작 없이 일정한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힐 디센트 컨트롤은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SUV에는 필수 항목이며, 정밀한 엔진 제어 기술이 필요하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선인자동차 수원 전시장의 유정민 씨는 “힐 디센트 컨트롤은 오프로드뿐 아니라 겨울철이나 미끄러운 도로에서도 상당히 용이하다. 오프로드에서는 당연히 안정감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무엇보다 운전이 편안하다. 최근에는 도심형

SUV가 인기지만 도심 주행과 야외 활동에도 매우 편리하며 패밀리 카로도 손색없다”며 익스플로러의 숨은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정신없고 험난했던 비포장길을 달린 익스플로러는 진흙과 흙탕물로 범벅이 되었다. 주로 도심을 달리는 익스플로러의 이런 모습은 상당히 강인해 보였다. 평상시 가족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보장하는 익스플로러가 거친 오프로드에서도 지친 기색 없이 안전하게 달려주니, 그야말로 팔방미인이다. 익스플로러의 인기는 판매량에서도 나타난다. 4월 수입차 판매량 3위에 이름을 올리는 기염을 토한 것.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가 모두 디젤이나 하이브리드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며 베스트 10 안에 뽐낸 유일한 SUV다. 여기에 8위에 오른 상반기 판매량(1562대)도 고무적인 결과다. 가솔린엔진(하이브리드 제외)으로는 유일하기 때문이다.

숨겨진 능력이 너무 많다

익스플로러는 패밀리 카가 지녀야 할 공간과 편의성, 전체적인 패키징이 굉장히 알차다. 여기에 다양한 주행 상황에 따른 민첩한 대처가 가능하고 힐 디센트 컨트롤이나 전방 카메라는 오프로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 두루두루 매력적인 모델이다. 익스플로러와 오프로드를 달리는 짜릿함은 직접 타보면 알 것이다.

— 선인자동차 부산 수영 전시장 **김동욱**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넘나드는 익스플로러는 7인승 SUV 중 통합 챔피언이다. 지형 관리 시스템(Terrain Management System)과 인텔리전트 4WD는 지형지물에 맞게 언제나 활동적인 주행이 가능하고, 넓은 트렁크 공간과 최적화된 패키징은 정통 SUV의 기준이나 다름없다.

— 헤인모터스 마포 전시장 **강태웅**





1



2



3



4



5

1 대치 전시장 내부 모습 2 최근 오픈한 일산 전시장 3 대치 전시장의 직원들 4 테크니션 오브 더 이어 시상식 5 머스탱 시네마 데이

성장의 조건 선인자동차 창립 20주년

포드자동차와 딜러십을 맺은 것이 1996년. 그리고 2016년, 선인자동차는 포드자동차의 성장세를 견인하는 주역으로 자리잡았다. 국내 모든 지역을 커버하는 독보적인 서비스 네트워크와 차별화된 영업 전략을 갖춘 이들의 지난 20년을 돌아봤다.

Editor 강미라

흔들리지 않는 파트너십

국내 수입차 시장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던 1996년 당시, 선인자동차는 포드의 상품성과 성장가능성을 검토하고 딜러십을 맺었다. 특히 포드의 높은 품질 대비 합리적인 가격은 자동차 대중화를 이끈 헨리 포드의 경영 철학을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았다. 이후 선인자동차는 용답동 서비스센터와 강남, 부천, 강릉 전시장 등을 확보하고 판매에 돌입했다. 포드는 수입차 선두 그룹을 차지할 만큼 높은 판매량을 달성했다. 선인자동차 역시 국내 수입차 시장의 패나 화려하게 데뷔했다. 하지만 이후 선인자동차의 행보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뒤이어 터진 IMF 사태 때문이었다. 상황은 어려웠지만 선인자동차는 이미 차를 구입한 고객에게 끝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오히려 더 철저하게 고객 관리에 매진했다. 덕분에 당시

포드의 단독 딜러사로서 파트너십은 더욱 끈끈해졌고, 고객의 신뢰는 깊어졌다. 선인자동차 저력의 원동력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2000년대 중반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덕분에 전국 14개의 판매 전시장과 15곳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갖추는 등 국내 거의 모든 지역을 커버하는 몇 안 되는 수입차 딜러사로 성장했다.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책임감이 선인자동차라는 울창한 숲을 우거지게 한 것이다.

고객 만족에 대한 책임감

위기 속에서도 이들을 생존하게 한 것은 고객 만족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지금껏 선인자동차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역시 변함없이 고객 만족이다. 서비스 품질 향상과 네트워크 확장에 끊임없이 주력하는 이유다.

가까운 과거만 봐도 2014년 대구, 인천에 소롭과 서비스센터를 확장·이전했고 2015년에는 동대구 서비스센터, 대전 직영 서비스센터를 신설했다. 대치 전시장은 확장·이전했다. 2016년에도 투자는 아낌없이 이어질 예정이다. 일산 전시장 확장과 일산 서비스센터의 신설을 완료했고 앞으로 서초, 강서, 동대문 전시장이 확장·이전될 것이다. 물론 인프라만 그럴듯하게 키우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서비스 품질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인재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선인자동차가 국내 최대 '마스터 테크니션(Master Technician)'을 보유할 수 있는 이유다. 마스터 테크니션은 포드의 테크니션 레벨 4단계를 통과한 톱 레벨 테크니션 중 경력과 실력을 까다롭게 평가해 선정하는데, 현재 25명의 마스터 테크니션이 선인자동차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4년, 2015년에는 연속으로 글로벌 포드 본사가 선정하는 '테크니션

오브 더 이어(Technician of the Year)'의 1~10위를 선인자동차가 모두 석권했다. 애프터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문화 마케팅과 프로모션도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펼치고 있다. 최근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이벤트는 지난 2월 400명의 고객을 초청해 잠실 자동차 극장에서 진행한 '머스탱 시네마 데이'였다. 머스탱 시네마 데이가 기존 고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 마케팅이었다면 'Feel Ford 설 시승 이벤트'는 신규 고객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4박 5일간 설 귀향 차량을 제공한 것. 선인자동차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객의 감성을 자극하고 풍성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심하고 있다.

선인자동차의 새로운 20년을 기대하라

지난 20년 동안 포드자동차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여기에 딜러사로서 선인자동차의 역할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포드와 함께한 이들의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성장의 필요조건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 적극적인 투자, 인재 발굴과 창의적인 마케팅 부분에 해당하는 내실 있는 소프트웨어 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궁극적인 것은, 고객 만족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그런 이들에게 앞으로의 목표를 물었다. 가까운 미래인 올해는 7000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직원 만족이 고객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으로 임직원 복지 향상과 사회공헌 활동에도 보다 집중할 계획이다. 주력하는 부분인 세일즈 네트워크 확충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예정. 선인자동차는 아직도 포드의 성장 여력이 크다고 강조한다. 스마트한 고객이 늘어나고, 그들의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현 상황에서는 포드의 강점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이들의 새로운 20년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1 남한산성 사대문 중 가장 웅장한 남문 2 익스플로러와 와인딩 도로를 달리기 위해 남한산성로를 찾았다.

“왜 서른이 넘으면 동보가 되는 걸까?” 이제는 동네 친구인 고등학교 동창 셋과 아침을 먹으며 물었고, 너나 할 줄 뼈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우리는 후덕해진 몸매에 대한 그 어떤 불안감도 없는 상남자들이다. 나를 포함한 넷의 몸무게는 0.4톤에 조금 못 미친다. 이 시대의 비만인이자, 30대 중반 회사원의 표준 체형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는 가끔 여행을 계획하지만 ‘과연 내 소형차의 타이어가 견딜 수 있을까?’라는 이과적인 농담으로 여행을 포기하곤 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주머니 속에 익스플로러 차 키가 있었고, 기름은 가득했다. 동보 넷이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 이유로 당당히 말했다. “적당히 먹어라. 점심은 과식할 테니까.”

익스플로러 앞에서 친구들은 감탄사를 쏟아냈다. 미국에서 온 정통 SUV 앞에 선 그들은 아끼 돼지처럼 보였다. 부분 변경이 적용된 익스플로러는 포드의 대표적 픽업트럭인 F-150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프런트 그릴과 안개등이 날카롭고, 강렬한 인상을 자아낸다. 시각적인 거대함에 매료되는 것도 잠시, 익스플로러는 실제로도 매우 크다. 전장만 5m가 넘고, 휠베이스는 2.8m에 육박하며, 폭은 1995mm로 국내에 출시한 SUV 중 가장 넓다. 높이도 성인 남성 평균키를 훌쩍 뛰어넘을 만큼 높다. 시트에 앉으려면 두꺼운 허벅지를 힘겹게 들어 올려야 할 정도다. 7인승 SUV인 익스플로러에 비견할 당치의 차량은 국내에 흔치 않다. 3열 시트도 억지로 만들어낸 공간이 아니다. 무릎마져 두꺼운 우리가 앉아도 큰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넓다. 적재 공간은 594L로 동급 대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이날 우리는 트렁크에 짐을 싣기 위해 3열 시트는 접어두기로 했다. 시트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손쉽게 접거나 세울 수 있다. 차체 바닥으로 시트가 완전 밀착되어 공간 손실도 최소화한다. 잠실에서 출발해 곧장 올림픽대로 강일 IC 방면으로 접어들 계획이었다.



묵직하게

오프로드와 온로드를 거침없이 달리는 SUV 포드 익스플로러를 타고 와인딩 도로를 탐색했다. 남한산성의 헤어핀 구간, 성곽의 풍경, 파전과 한용운의 시, 0.4톤에 달하는 네 남자의 묵직함으로 일요일 오전의 남한산성로를 달렸다.

Writer 조진혁<아레나 옴므 플러스> 피쳐 에디터

Photographer 류정렬



1

차량은 서행하고 있었고, 익스플로러는 차량들 사이의 빈틈에 끼어들며 도로에 합류했다. 큰 차로 정체 구간을 지나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차량의 크기가 부담이다. 하지만 익스플로러의 높고 넓은 시야 덕분에 차선 변경이 어렵지 않았다. 시트 포지션이 트럭과 비슷했다. 그 정도로 높다. 학교 의자 같은 시트에 앉아 책상 위 펜처럼 스티어링 휠을 잡고 운전한다. 허리가 곧추선 것 같아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장거리 주행에서는 이러한 시트가 오히려 피로감을 덜어준다. 픽업트럭의 DNA가 시트에서도 느껴졌다. 의외의 구석은 있었다. 이 정도 크기의 SUV는 대체로 디젤을 사용하는데, 익스플로러는 처음으로 14 2.3L 에코부스트 엔진을 사용했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어도 조용하며, 떨림도 없다. 철저한 방음 덕에 창문을 열어야 엔진 소리가 들린다. 남자답다고 생각했다. 덩치가 크고 힘은 세지만 과묵한 그런 곰 같은 남자 말이다. 뚱뚱한 우리 남자들은 저리도 수다스러운데.

천호대교를 지나자 정체가 풀렸다. 본격적으로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짹 잡으라고 친구들에게 말한 뒤 가속페달을 지그시 밟았다. 0.4톤을 실은 2.1톤의 육중한 SUV가 금세 100km/h를 돌파했다. 6단 자동변속기는 물 흐르듯 부드러운 변속을 보여줬고, 가솔린엔진임에도 높은 초반 토크로 날렵한 가속 성능을 발휘했다. 하지만 실내는 여전히 고요했다. 풍절음도, 엔진의 굉음도 실내로 유입되지 않았다. 단단한 차체와 높은 시야는 속도감을 안정감으로 바꿨다. 마치 잘 만든 세단을 탄 듯했다. 강일 IC를 지나 중부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고속 주행 구간에서 친구들은 즐기 시작했다. 1차로를 빠르게 달려도 그들을 깨울 수는 없었다. 고속도로에서의 주행은 익스플로러엔 너무 가벼운 일이었다. **4기통에 불과한 2.3L 에코부스트 엔진이 거대한 무게를 간단히 제압했다. 작지만 폭발적이다. 최고 출력 274마력, 최대 토크 41.5kg·m의 성능을 발휘하는 엔진은 비만인 둘을 더 태워도 감당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들의 식비는 감당할 수 없겠지만.

경쾌한 주행감을 유지하며 남한산성으로 방향을 틀었다. 광주시와 성남시 사이에 위치한 산꼭대기에 남한산성이 있다. 남한산성으로 이어지는 길을 남한산성로라 부르는데,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300~500m의 고지대라 기온도 낮고 가벼운 업힐과 다운힐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드라이브 좀 즐긴다는 사람들이 와인딩을 즐기는 구간으로도 유명하다. 새벽에는 스포츠카들이 요란한 엔진음을 발산하지만 낮에는 서행하는 차량들로 좀처럼 속도를 내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이른 시간에 남한산성로에 도착했고, 도로는 한산했다. 잠든 뚱보들을 깨우기 적절했다. 목적지는 남한산성 주차장이었다. 2차로의 굽이진 와인딩 도로이며, 뜬금없이 헤어핀 구간도 등장한다. 과속방지턱이 없어 무작정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 그러니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스티어링 휠을 똑바로 잡은 뒤 가속페달을 밟았다. 곧이어 뚱보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왜 이러느냐고 묻는 질문과 거친 소리들이

1 덩치는 크지만 물 흐르듯한 주행감을 선보인 익스플로러 2 푸른 숲 사이로 드러난 성곽의 모습 3 눈부신 초록이 가득했던 남한산성로



2



3

들렸고, 웃음소리도 들렸다. 어쨌든 작전은 성공했다. 와인딩 구간은 차량의 서스펜션 안정성과 스티어링 휠의 정교함, 엔진의 순발력을 파악하기 좋다. 익스플로러는 차체가 높은 SUV로 스포츠카 같은 빠른 회전을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다. 애초에 언더스티어를 방지하기 위해 60km/h 내외의 속도로 와인딩 구간을 달릴 계획이었다. **급회전으로 중력이 높아질 때마다 단단한 차체는 안정감을 발휘했고, 스티어링 휠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향했다. 브레이크가 육중한 차체를 잘 잡아줬고, 높은 토크는 흔들림을 바로잡으며 균형을 맞춰갔다. 거대한 SUV에 이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동보들이 모두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 속도를 낮췄다. 그제야 창밖의 풍경이 보였다. 푸른 하늘과 울창한 녹음. 그리고 멀리 서울의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남한산성에는 몇 개의 주차장이 있다. 그리고 주차장은 하나같이 넓다. 우리는 가장 먼저 보이는 남한산성 로터리에 위치한 주차장에 도착했다. 주차장 근처에는 파전이나 산채비빔밥을 파는 식당들이 있었다. 물론 이곳 주차장 외에 다른 주차장 주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차를 세우고 고민했다. 저 식당에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주차장의 맛집에 갈 것인가. 인터넷으로 맛집을 찾아보았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곳인데 둘레길 정도는 걸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잠에서 막 깬 동보들에게 걷자는 소리는 먹히지 않았다. 우리는 가야금 곡조가 흘러나오는 식당 테라스에 앉아 막국수와 메밀전병을 시켰다. 배를 채우고 소화도 시킬 겸 남한산성도립공원의 둘레길을 걷기로 했다. 매표소에서 표 4장을 끊고 남한산성로를 따라 올라갔다. 오래된 나무들, 흙길, 사극에나 나올 법한 예쁜 성곽 사진을 찍었다. 서울의 동쪽을 지키는 요새였던 남한산성에 올라서니 먼 곳도 한눈에 보였다. 어디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올지 알 수 있었다. 네 명의 동보를 태운 거함 SUV 익스플로러가 와인딩하는 광경도 보였을 것이다. 둘레길은 3.8km로 북문과 서문을 지나 남문을 거쳐 로터리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코스였다. 하지만 북문에서 우리는 더 이상 행군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땀이 땀에 흠뻑 젖었고, 숨이 찼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동보도 있었다. 결국 걷기를 포기하고 차로 돌아왔다. 소음조차 없는 익스플로러의 시동을 켜고,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정신을 차렸다. 점심을 거하게 먹고, 남들보다 조금 덜 걸었을 뿐인데 치명적이었다. 로터리 주차장을 빠져나가 식당들이 즐비한 골목으로 진입했다. 만해기념관에가기로 했다.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관광지였다. 한때는 문학소년이었던 우리에게 어울리는 곳이라고 자유했다. 만해기념관은 한용운 시인의 업적과 삶을 돌아보는 박물관이다. 박물관 앞에는 문학이 있는 날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낭송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물론 낭송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대신 익스플로러를 바라봤다. 고요한 SUV ‘익스플로러 남’이 침묵하고 있었다.



1 남한산성 주변엔 막국수를 비롯해 파전, 비빔밥 등을 파는 맛집이 많다. 2 한용운 시인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만해기념관 3 단단한 차체가 급회전 구간에서도 안정적이다.



Aloha, Oahu!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와 야자수가 그림처럼 펼쳐진 섬,
오아후. 포드 익스플로러와 함께 와이키키 비치에서 시작되는
해안을 따라 하와이의 심장인 오아후를 일주하다 보니
지상낙원이 따로 없다.

Editor 김민정

Cooperation 하와이 관광청 한국 사무소(www.GoHawaii.com/KR)

참고 서적 《디스 이즈 하와이》양인선 저, 테라출판사



1 와이키키 비치가 내려다보이는 수려한 전망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 헤드는 오아후의 랜드마크다. 2 잔잔한 파도와 고운 모래로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와이키키 비치

최상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

구릿빛 피부의 서퍼들이 서프보드에 몸을 싣고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즐긴다. 해변에서는 모래사장에 수건 한 장 깔고 비키니 차림으로 선댄을 하거나 여유롭게 산책을 한다. 도심에선 꿈같은 이야기겠지만, 하와이에선 현실이 된다. 산호빛 푸른 바다와 눈부시게 반짝이는 모래 해변,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이루어진 섬. 하와이는 하와이 아일랜드, 오아후, 마우이, 카우아이, 몰로카이, 라나이의 주요 여섯 개 섬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 오아후는 하와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하와이 인구 80% 이상이 살고 있다. 제주도와 비슷한 크기인 오아후의 호놀룰루에는 하와이의 경제, 정치, 교육이 집중되어 있다. 하와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와이키키 비치(Waikiki Beach)가 자리한 오아후의 가장 큰 매력은 휴양과 도시의 느낌이 공존한다는 것. 관광과 휴양, 쇼핑, 식도락의 메카로 취향에 맞는 다채로운 여행이 가능하다.

와이키키 비치는 포트 데러시 비치(Fort Derussy Beach), 쿠히오 비치(Kuhio Beach)까지 죽 이어지는데, 이를 통틀어 와이키키 비치라 부른다. 세계적 관광지인 이곳은 한쪽을 방파제로 막아 안쪽 수심이 얕으므로 가족들이 물놀이를 하기 좋고 방파제 바깥쪽으로는 잔잔한 파도가 몰려와 초보자들이 서핑 강습을 받기에 그만이다. 와이키키 해변에서 거대한 바위산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다이아몬드 헤드(Diamond Head)다. 화산 폭발로 형성된 분화구인 다이아몬드 헤드는 하와이의 대표적 상징물이다. 분화구 정상에서 반짝거리는 암석을 보고 다이아몬드로 착각한 탓에 다이아몬드 헤드라는 이름이 붙었다. 걸어서 분화구 정상까지 40분 정도 소요되는데, 정상에 오르면 어디가 하늘이고 바다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파란 바다와 아름다운 호놀룰루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장관처럼 펼쳐지는 그 풍경이 왜 다이아몬드 헤드가 오아후의 랜드마크인지 말해준다.



1, 2 각기 다른 매력의 크고 작은 비치들이 가득한 오아후 3 붉은 의상을 입고 하와이 전통 댄스 홀라춤을 추고 있는 여인들 4 세계 최고 서핑지인 노스 쇼어에서는 6m에 달하는 파도를 즐길 수 있다.



2



3

포드 익스플로러와 함께 해안도로 드라이빙
오아후는 도로가 많지 않고 드라이브 코스가 단순해 지도와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포드 익스플로러와 함께 섬을 일주할 수 있다. 드라이빙 코스로는 72번 도로를 추천한다. 동쪽으로 도는 72번 도로의 시작은 호놀룰루를 관통하는 H1 고속도로 동쪽 끝에서부터.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눈앞에 펼쳐진 드넓은 바다를 마주하게 되는데 스노클링으로 유명한 하나우마 베이(Hanauma Bay)다. 하나우마 베이는 화산으로 생겨난 만으로 자연보호가 철저하게 이뤄진다. 오른쪽에 하나우마 베이 있다면 왼쪽에는 하이킹으로 유명한 코코 헤드(Koko Head)가 있다. 그리고 계속 달리다 보면 멀리 작은 산과 빨간 지붕의 등대가 보인다. 푸른 바다 색깔과 대비되는 선명한 빨간 지붕이 인상적인 마카푸 포인트(Makapuu Point)다. 초록색, 하늘색, 짙푸른색 등 형형색색 빛나는 바다와 절벽 아래로 하얀 파도가 부서진다. 마카푸 포인트 앞에는 흑등고래가 지나는 몰로카이 해협이 있어 12월부터 5월까지 망원경으로 고래를 볼 수 있다. 카후쿠(Kahuku)를 지나 83번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섬을 빙 둘러 와이키키로 돌아오는 드라이브 코스 또한 72번 동쪽 해안 드라이브 코스만큼이나 멋진 장관을 보여준다. 무성한 아자수와 아담한 해변, 중간중간 나타나는 집들이 이국적이다. 카메하메하 고속도로를 타고 신나게 달리다 보면 83번 도로에서 99번 도로로 이어지는 부분에 노스 쇼어(North Shore)의 할레이바(Haleiwa)라는

하와이의 옛 모습을 간직한 마을이 나타난다.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서퍼의 도시로 유명하다. 아기자기하면서 빈티지한 상점과 유명 음식점이 많은데, 특히 달콤한 우유 시럽과 팔이 달콤한 셰이브 아이스와 할레이바의 명물인 새우 트럭의 새우 요리는 꼭 맛봐야 한다.

익사이팅한 액티비티 도전하기

오아후를 다이내믹한 여행지로 추억하고 싶다면 해상 스포츠, 하이킹, 스카이다이빙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겨보자. 파도가 잔잔한 와이키키 해변에는 수많은 보드 대여점이 있고 강습도 받을 수 있어 초보자들도 부담 없이 서핑에 도전할 수 있다. 서핑의 발상지답게 일반적인 보드 외에도 노를 저어 움직이는 스탠드업 패들보드, 물위를 걷는 서핑, 상체만 말착에 얹드려 타는 부기보드 등 종류가 다양하다. 보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간단히 강습만 받으면 혼자 연습하며 탈 수 있고, 스노보드를 타는 사람은 더 빨리 배울 수 있다. 숙련된 서퍼라면 파도가 거세 서퍼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오아후의 서핑지에서 바로 파도를 탈 수 있다. 샌디 비치(Sandy Beach)와 노스 쇼어는 세계 최고의 서핑지로 손꼽히는데, 겨울에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6m에 달하는 파도가 밀려와 더욱 짜릿한 서핑을 즐길 수 있다. 산호와 물고기들을 바닷속에서 감상할 수 있는 스노클링 장소로는 알록달록한 열대어와 거북을 볼 수 있는 하나우마 베이가 좋다. 천연 그대로의 바다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중 공원으로 몇 분간의 시청각 교육 후 입장 가능한 이곳은 수심이

얕아 아이들이 체험하기 안심맞춤이다. 자격증 없이도 강사와 함께 바닷속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스쿠버다이빙과 손맛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바다낚시, 제트스키, 윈드서핑 등 오아후에는 스틸 넘치는 해양 스포츠가 무궁무진하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기차길을 오르는 특별한 하이킹 코스인 코코 헤드를 추천한다. 열대우림을 가로지르며 오르는 코스로 산의 아랫부분부터 정상까지 직선으로 좁은 철길을 따라 계단이 있어 길이 꼭대기까지 훤히 보인다. 좀 더 쉬운 하이킹 코스로는 와이메아 밸리(Waimea Valley)가 있다. 오아후의 대표적인 가족 공원으로 야생 조류를 비롯해 하와이 특유의 동물과 식물은 물론 전 세계의 진귀한 식물이 많다. 각종 열대 식물과 커다란 나무를 따라 30분쯤 걷다 보면 하와이 전사들이 용맹스럽게 뛰어내리던 높이 18m의 와이메아 폭포가 나온다. 폭포에서 떨어지며 펼쳐지는 클리프 다이빙 쇼와 하와이안 홀라댄스 쇼는 이곳의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바다와 산을 즐겼다면 이번엔 하늘이다. 오아후 북서쪽에 위치한 딜링엄 비행장(Dillingham Air Field)에서는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빙을 체험할 수 있다. 하와이는 헬리콥터로 섬을 일주하는 패키지가 많은데, 오아후 일주는 일반적으로 1시간 코스로 조종사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섬을 반 바퀴 돌아볼 수 있다.



4

꽃보다 이 배우, 꽃다 김다현을 만나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를 준비 중인 배우 김다현을 만났다. 이번엔 거리의 음유시인, 그랭구아르다.

Editor 정예진 Photographer 심주호 Hair&Makeup 설은선
Cooperation BROOKS BROTHERS(02-3442-3012), ECCO(031-628-4800), S.T DUPONT(02-6911-0814), T.N.G.T(02-540-4723)

그를 처음 본 건 2004년에 공연한 뮤지컬 〈헤드윅〉에서였다. 동독을 빠져나와 미국에 가기 위해 성전환 수술을 한 소년 ‘헤드윅’이라는 등장인물만으로도 충격적인 시절이었다. 다른 누군가였다면 그 이상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날 〈헤드윅〉과 함께한 배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180cm를 훌쩍 넘는 건장함 속에서 최고의 요염함을 뽐낸 주인공. 슈퍼모델 뺨치는 외모와 자태로 무대를 중형무진하며 관객을 흥분시키는 모습은 나를 비롯한 수많은 대중의 머릿속에 각인되기에 충분했다. 그는 젠더를 정의하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배우, 사람’이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가 ‘꽃다’라는 별명으로 통하게 된 것은. 뮤지컬 무대에 오른 지 13년 동안 김다현의 헤드윅, 그러니까 다드윅은 그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작품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다드윅을 그리워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감사하죠. 공연 횟수가 가장 많은 작품은 아마도 〈헤드윅〉이 맞을 거예요. 공연을 할 때마다 연구하게 되는 캐릭터인데요. 다시 만나게 된다면 또 다른 콘셉트의 헤드윅을 보시게 될 거예요. 언젠가 다시 하고 싶은 공연이기도 하고요.”

많은 배우와 가수들이 헤드윅을 거쳐갔지만 다드윅만의 강점은 확실해 보인다. “헤드윅이라는 인물이 느끼는 고통과 행복감, 그 폭이 굉장히 넓은 캐릭터인데 그 사이를 잘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무대에서 논다’라는 평가를 해주시니 너무 좋죠. 정말 공연에 모든 걸 쏟아부은 뒤에는 몸에서 기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져요. 그때 느끼는 카타르시스가 엄청나죠. 그게 참 매력적인 작품이에요.”

사실 그를 처음 본 건 〈헤드윅〉에서가 아니었다. 공연이 끝나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그것을 알게 되었다. 알려져 있다시피, 그는 밴드 ‘야다’의 베이시스트이자 보컬리스트로 처음 대중을 만났다. ‘이미 슬픈 사람’으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짧은 밴드 생활을 마치고 뮤지컬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다. 2003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시작으로 13년 동안 쉼 없이 뮤지컬과 연극 무대를 오갔다.





플라워 프린트 셔츠와 베이지 리넨 재킷 모두 S.T.듀폰
화이트 팬츠 브룩스 브라더스



스카이블루 리넨 재킷 S.T.듀폰, 피시 프린트 셔츠 브룩스 브라더스, 치노 팬츠 TNGT, 화이트 스니커즈 예코

김다현은 참 신기한 배우다. 물론 16년 동안 뱀파이어를 의심할 정도로 변함없는 외모도 그의 신비로움에 한몫한다. 모델 같은 외모에 멋 부리기 좋아할 듯한데도 패션에 영 자신이 없단다. “팬들이 저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팬들이 제안해주시는 게 가장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게다가 요리를 잘하고, SUV를 몰고 캠핑 가는 것을 좋아하는 두 아이의 아빠다. “우리 집 거실은 가끔 동물원이 돼요. 아이들처럼 동물 흉내를 내면서 한바탕 몸으로 놀아줘요. 큰아이의 꿈은 벌써 우주 대스타죠.” 포드 익스플로러에 대한 생각도 내비쳤다. **“포드 익스플로러는 꼭 한 번 갖고 싶은 차예요. 아이들과 함께 타기에도 좋고 캠핑하러 가기에 알맞은 차죠. 가평을 비롯해 다양한 캠핑장에 다니는 편이에요. 직접 운전하면서 여행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포드라면 정말 즐겁고 편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엔 포드 익스플로러를 타고 여행하고 싶네요.”** 익스플로러는 묵직한 SUV지만 투박하기보다는 날렵하고 섬세한 외관이 꼭 김다현을 닮았다. 한편으로는 평범한 아빠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대를 소화하는 주연 배우다. 하지만 그는 창작 뮤지컬에 대한 애정의 끈을 놓지 않는다. “제가 맡은 캐릭터라면 뭐든 애착이 가는 게 당연해요. 헤드윅은 물론 라카지나 다른 역할 모두 소중하지 않은 작품이 없어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창작 뮤지컬은 남다른

매력이 있어요. 글로만 존재하던 캐릭터를 무대 위에 살아나게 하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데뷔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부터 최근에 공연한 〈보이책〉, 〈신과 함께〉 같은 작품이 제겐 좀 남다른 작품이에요.” 특히 〈보이책〉에서는 캐릭터를 위해 10kg 정도 체중을 감량하는 투혼을 발휘했다. 작품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고지식할 정도로 진지하다는 것은 그가 해온 작품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헤드윅〉부터 〈라카지〉, 〈프리실라〉, 연극 〈엔. 버터플라이〉에 이르기까지 유독 색다른 캐릭터를 많이 해온 그지만 느지막이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뮤지컬 〈서편제〉를 통해 북을 치는 동호 역할을, 또 〈보이책〉에서는 미쳐가는 군인 역할을 맡아 사람들에게 배우 김다현의 한계를 짓기에는 아직 멀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와 한 번쯤 대화를 나눈 인터뷰어들은 그에게서 이상하게 빛나는 진지함을 느꼈을 것이다. 침착하고 조용한 말투 때문에 느껴지는 착각이 아니라 ‘연기’라는 것에 이상적인 모범생 같은 진지함이 그에게서 묻어난다. “무대는 관객과 교감이 이루어져야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평소에도 객석의 관객과 눈을 잘 맞추는 배우로 유명한 그가 말을 이었다. “무대에서 열심히 하는 것과 객석의 관객과 교감하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것과 관객의 감정이 교집합을 이룰 때, 비로소 무대가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여장(女裝)을 한 오페라 배우 역할을 맡은 연극 〈엔.

버터플라이〉에서 말없이 오랫동안 객석을 응시하며 관객을 사로잡은 김다현을 떠올리며 그의 교집합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요즘 새로운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막바지 연습에 한창이다. 이번에 맡은 배역은 〈노트르담 드 파리〉의 그랭구아르다. “그랭구아르가 곧 빅토르 위고의 대변인이죠. 작품을 보신다면 그랭구아르가 부르는 넘버들의 가사를 깊이 음미해보세요. 번역된 작품이지만 그 의미가 손상되지 않도록 심표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연습 중입니다.” 〈노트르담 드 파리〉의 대표 넘버, ‘대성당들의 시대’를 부르는 김다현은 과연 또 어떤 눈빛으로 관객을 바라볼까? 온라인에서는 벌써부터 김다현의 그랭구아르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여겨저기서 만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꼭 만들었으면 하는 뮤지컬, 하고 싶은 뮤지컬에 대해 물었다. “무대에서 꼭 보고 싶었던 작품이 이번에 드디어 뮤지컬로 나오게 되었어요. 물론 저도 캐스팅되었고요.” 당시에는 엠바고(보도 시점 유예)로 인해 말을 아꼈지만, 요즘 그는 가수 서태지가 제작한 뮤지컬 〈페스트〉의 의사 리유 역할을 맡아 이슈가 되고 있다. 그가 고대했던 작품 인터뷰가 진행된 것은 5월의 황금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아마도 연휴의 많은 시간을 그랭구아르로 보냈겠지만, 잠시 동안은 찜을 내어 두 아들과 함께 캠핑을 떠났기를 바라본다.

On The Beach

역동적이고 날렵한 디자인의 몬데오는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한다.
매력적인 몬데오와 서머 머스트 해브 아이템인 남성 선글라스, 슈즈가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조우했다.

Editor 김민정 Photographer 류창렬

- 1 블루 프레임에 우드 소재가 믹스 매치되어 멋스러운 선글라스 휴고 보스 by 사필로
- 2 밀리터리 패턴 프레임이 시선을 끄는 선글라스 돌체앤가바나 by 록소티카
- 3 볼드한 화이트 프레임이 시원한 선글라스 구찌 by 사필로
- 4 꼬임 레더 디테일의 블루 컬러 드라이빙 슈즈 지아니 드 시모네 by 일모
- 5 다양한 스타일에 매치할 수 있는 그레이 컬러 드라이빙 슈즈 에코





- 1 오렌지 컬러 프레임이 시선을 사로잡는 선글라스 S.T. 듀종 by 디케이
2 블랙 역삼각형 프레임에 골드 더블 라인 디테일이 감각적인 선글라스 발망 by 디케이
3 블루 컬러 렌즈와 투명 프레임이 청량감을 더하는 선글라스 S.T. 듀종 by 디케이



- 1 버클 장식이 깔끔한 베이비 블루 컬러 로퍼 아.테스토니
2 차분하고 부드러운 감성을 품은 베이지 컬러 드라이빙 슈즈 에코
3 태슬 장식이 고급스러운 스웨이드 네이비 컬러 로퍼 아.테스토니
4 스츠에도 잘 어울리는 캐주얼한 원탑 슈즈 캠퍼

- 1 카키 컬러 사각 프레임이 세련된 선글라스 조지오 아르마니 by 록소티카
- 2 블루 컬러 렌즈와 블랙, 골드, 화이트 컬러 프레임이 돋보이는 선글라스 톰 브라운 by 나스월드
- 3 블랙과 골드 컬러의 투톤 라운드 렌즈가 독특한 선글라스 엠포르오 아르마니 by 록소티카



- 1 버클 장식과 스티치 디테일이 세련된 블루 컬러 드라이빙 슈즈 에코
- 2 산뜻한 그린 톤이 감각적인 스웨이드 드라이빙 슈즈 락포트
- 3 시선을 사로잡는 블루 컬러 에스파드리유 믹스 매치 로퍼 아테스토니
- 4 크로커다일 디테일이 고급스러운 블랙 컬러 드라이빙 슈즈 에코
- 5 포인트 아이템으로 제격인 오렌지 컬러 슬립온 캠퍼

Cooperation
A.TESTONI(02-554-4310)
CAMPER(02-540-5690)
DK(02-717-3990)
ECCO(031-628-4800)
ILMO(02-1599-0007)
LUXOTTICA(02-501-4436)
NAS WORLD(02-512-2225)
ROCKPORT(02-6137-5100)
SAFILO(02-516-9006)

Summer Keeper

노화를 촉진하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자외선은 꼼꼼히 차단하되, 이미 자극받은 피부는 정성껏 다독이고 쉬게 할 것. 이 두 가지면 강렬한 햇살도 두렵지 않다. 눈부신 여름을 지배하는 스킨케어 팀.

Editor 김미라 Photographer 류창렬

1 피부를 보호하는 발아 해바라기 씨앗, 발아 흑개 성분이 들어 있다. 알레르기 테스트를 통과한 쿠션 타입 저자극 선 블록. 스킨 릴리프 데일리 선 쿠션 SPF33 PA++ **PRIMERA** **2** 광범위한 자외선을 차단하고 유해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멜라스크린 UV 크림 레제르 SPF50+ PA+++ **DUCRAY** **3** 갓고 다니면서 수시로 덧바를 수 있는 스틱 타입 선 블록. 아벤느 온천수를 함유해 끈적임 없이 수분을 공급한다. 선 스틱 포 센시티브 에어리어 SPF50+ PA+++ **AVENE** **4** USDA 유기농 인종 알로에 베라 잎즙을 사용해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킨다. 미백, 주름 기능성 인증을 받았으며 50시간 이상 촉촉함이 지속된다. 멀티 프로텍션 크림 SPF50 PA+++ **A24**



Protect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다.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을 습관화해야 하는 이유다. 매일 사용해야 하는 만큼 피부 타입에 맞는 것으로 신중히 고르자. 특히 민감한 피부일수록 성분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천연 성분을 함유해 피부 자극을 줄인 제품이 좋다. 미백, 항산화, 보습, 피부 톤 보정 등의 기능을 결합한 멀티 플레이어 제품도 많은데, 자신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따져볼 것. 같은 기능의 제품을 여러 개 덧바르다 보면 오히려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땀과 분비물이 많은 여름일수록 스킨케어 단계를 경제적으로 줄이는 것이 좋다. 자외선 차단제에 표기된 SPF 지수는 자외선 차단이 지속되는 시간이므로 숫자가 낮을수록 자주 덧바른다. PA는 PA+, PA++, PA+++ 세 종류로 표기되는데 +가 많을수록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제품이다. 장시간 야외 활동에는 +가 많은 것을 선택한다. 휴대가 용이한 선 스틱이나 메이크업 후에도 덧바를 수 있는 쿠션 타입 제품 역시 여름철 필수 아이템.

1 자외선 차단 기능과 더불어 히노키, 히비스커스, 퀴노아 씨 추출물 등의 효능 성분이 민감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해준다. 더블 컷 선 스틱 SPF50+ PA+++ **VERITE** **2** 미세 먼지나 공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베이지 톤의 자연스러운 보정을 도와준다. 선 프로텍션 쿠션 SPA50+ PA+++ **AMORE PACIFIC** **3** 자외선 차단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지 않으며 안전한 원료를 엄선해 만든 선크림. 내추럴 틴티드 선크림 SPF30 PA++ **AROMATICA** **4** 산뜻한 텍스처의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 선크림. 화사한 핑크빛이 피부 톤을 밝게 만들어준다. 마린 선 더블 프로텍션 데일리 SPF35 PA++ **LIRIKOS** **5** 흑개와 흑곰의 풍부한 발아 에너지가 항산화 효과를 선사하는 자외선 차단제. 스킨 릴리프 UV 프로텍터 SPF50+ PA+++ **PRIMERA**

Survive

건강한 피부라면 각질이 탈락되고 새로운 피부 세포가 만들어지는 데 약 4주 걸린다. 하지만 자외선으로부터 자극받은 피부는 예민해지고 건조해져 피부 재생 주기가 길어진다. 게다가 많이 나니 모공의 크기가 커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 피부 저항력이 더 약해질 수 있다. 애프터 케어를 소홀히 하면 피부가 쉽게 망가질 수 있는 것. 일단 집에 돌아오면 깨끗이 세안한 후 열을 떨어뜨리고 피부를 진정시킨다. 토너로 피부를 정돈하고 찬물을 적신 타월을 2~3분 정도 얼굴 위에 올려두는 방법을 추천한다. 이후 보습력이 좋은 제품을 충분히 바른다. 모발 역시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면 생기 없이 푸석푸석해지고 두피가 자극을 받아 탈모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모발과 두피의 회복력을 높이는 제품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1 정제수 대신 USDA 인증 유기농 알로에 베라 잎 추출물이 93% 들어 있어 수분을 풍부하게 공급한다. 씨대퍼필 아쿠어 토너 **AROMATICA** 2 바르자마자 수분을 공급하고, 자일리톨과 페퍼민트의 자연 성분이 쿨링 효과를 준다. 외부 오염 물질로부터 피부 접촉을 차단하며, 미백 기능성 처방까지 더해졌다. 더마 디펜스 수딩 젤 **DR.JART+** 3 유기농 센토리 추출물이 열로 붉어진 피부를 가라앉힌다. 세퀴아아 새싹 추출물은 피부 에너지 대사를 도와 원활한 피부 턴오버를 촉진한다. 퓨어 하이드레이팅 인텐스 크림 **PRIMERA** 4 저자극 포뮬러가 적용되어 순하게 피부를 진정시키고,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한다. 더 미니엄 앰플 에센스 **INNISFREE** 5 선안장 시드 오일이 피부 속 수분을 잡아주는 가벼운 워터 타입 에센스. 쿨링과 진정,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 에센스 그립 워터 **HUXLEY** 6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수액 성분이 외부 자극으로 지친 피부, 유·수분 밸런스가 깨진 피부를 촉촉하고 편안하게 한다. 상쾌한 사용감과 청량한 향이 인상적인 제품. 수옴크림 **SULWHASOO**



Cooperation
A24(02-455-1414), AMOREPACIFIC(080-023-5454),
AROMATICA(1600-3689), AVENE(1899-4802),
BURT'S BEES(080-308-8800), DTRT(1544-7077),
DR.JART+(1544-5453), DUCRAY(1899-4802),
HUXLEY(070-7123-0077), INNISFREE(080-380-0114),
LaFORLAB+(02-455-1414), LIRIKOS(080-023-5454),
LIVING PROOF(070-4373-7868), PRIMERA(080-023-5454),
RAUSCH(080-400-0853), SULWHASOO(080-023-5454),
VERITE(080-023-5454)

1 USDA 유기농 알로에 베라즙을 기본 베이스로 호호바 씨 오일, 시어버터 등 천연 유래 보습 성분을 함유한 저자극 제품. 강력한 보습력이 유·수분의 균형을 잡아주고 각질과 붉은 피부를 진정시킨다. 퍼펙팅 스킨 쉴드 **LaFORLAB+** 2 외부 자극으로부터 손상된 모발과 두피의 즉각적인 회복과 재생을 도와주는 리페어 샴푸. 카모마일 아마란스 리페어 샴푸 **RAUSCH** 3 세라마이드 성분이 유해 물질 침투를 막는 표피 성분을 형성해 수분 보유력을 높이고 피부 본래의 유연성을 회복시킨다. 세라마이드 성분은 여자보다 피부가 두꺼운 남성에게 적합하다. 세라마이드 크림 스킨 세이버 **DTRT** 4 극도로 손상된 모발을 윤기 나는 머릿결로 만들어주는 수면 팩. 무겁지 않은 특수한 포뮬러가 베게에 묻어나지 않는다. 퍼펙트 헤어 데이 나이트 캡 오퍼나이트 퍼펙트 **LIVING PROOF** 5 수분과 영양을 집중 공급하는 크림 제형 마스크. 얼굴에 적당량 바르고 약 15분 후 미온수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낸다. 인텐스 하이드레이션 트리트먼트 마스크 **BURT'S BEES**

Wonderful Coast Road



1



2



3



4

눈부신 태양 아래 파란 바다를 옆에 끼고 쪽 뺨은 도로를 달리는 일은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안도로에서 듣기 좋은 앨범을 소개한다.

Editor 김민정 **Photographer** 류창렬
Cooperation Sony Music(02-530-0900), Stomp Music(02-2658-3546), Universal Music(02-2106-2000)

1. AfroPHYSICIST

탁월한 트럼펫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테오 크라커의 데뷔 앨범으로 역동적인 다크 펑크 뮤직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전설적인 트럼프 재즈 뮤지션 독 치텀(Doc Cheatham)의 외손자인 테오 크라커는 할아버지의 연주를 듣고 열한 살 때부터 트럼펫을 배우기 시작해 타고난 음악성과 정교한 테크닉이 돋보인다. 모달 재즈(Modal Jazz)는 물론 1960~1970년대풍 솔 재즈를 바탕으로 펑크(Funk)와 힙합, 록 등 다양한 장르가 녹아든 화려한 연주를 즐겨보자.

Theo Croker, 1CD 12곡, Sony Music

2. I Like It When You Sleep, For You Are So Beautiful Yet So Unaware of It

스타일리스 록 밴드 The 1975는 영국 윈슬러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여 결성한 밴드다. 레트로 사운드를 모던하게 풀어내는 이들이 3년 만에 선보인 이번 앨범에 수록된 펑키한 사운드의 'Love me', 'The Sound' 그리고 발라드 감성의 'A Change of Heart', 'Somebody Else'로 The 1975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자.

The 1975, 1CD 17곡, Universal Music

3. Rendez-Vous In Tokyo

기타리스트, 작곡가 그리고 프로듀서로 활약하는 고로 이토와 마에스트로 첼리스트 자크 모렐렌바움의 컬래버레이션 앨범. 수많은 프로젝트로 다져진 이들의 환상적인 호흡을 엿볼 수 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빈, 카에타노 벨로조 등 브라질 거장들의 작품을 비롯해 고로 이토와 자크 모렐렌바움의 오리지널 곡을 모두 한 장의 음반에 담았다.

Goro Ito+Jaques Morelenbaum, 1CD 11곡, Stomp Music

4. This Is What The Truth Feels Li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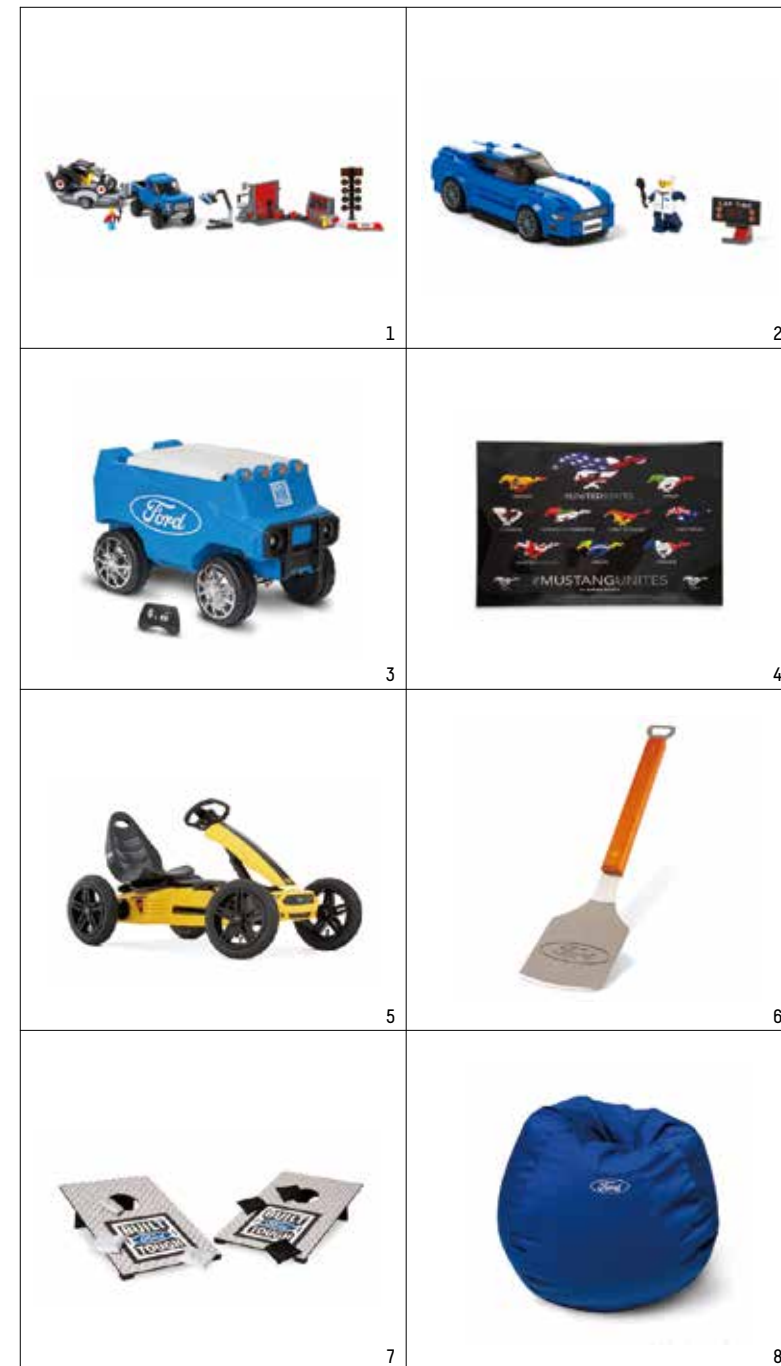
그룹 노 다우트(No Doubt)의 보컬로 데뷔한 그웬 스테파니는 특유의 매혹적인 음색과 가창력을 인정받아 솔로 앨범을 출시해 많은 사랑을 받은 디바다. 이번 앨범은 10년 만에 선보이는 정규 음반으로 더욱 반갑다. 디스코 비트의 펑키한 에너지가 돋보이는 사랑 노래 'Make Me Like You', 모던 록 넘버 'Misery', 그리고 솔직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은 미드 템포의 'Used To Love You' 등이 수록돼 있다.

Gwen Stefani, 1CD 13곡, Universal Music

Funny Family Time

아이는 물론 어른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만한 아이템을 모았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더 특별하게 채워줄 것이다.

Editor 강미라 **Cooperation** <http://shop.lego.com>, <http://merchandise.ford.com>



*위 제품(레고 제외)은 국내 판매용이 아니며, 인터넷 해외 배송으로만 구입 가능합니다.

1 LEGO F-150 Raptor

F-150 랩터 트랙, 트레일러, 모델 A 핫로드, 팀 전용 정비소, 우승 시상대, 출발 신호등 타워 등으로 구성된 제품. 레이스 경주 상황을 체험할 수 있다. 국내 레고 공식 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7만4900원

2 LEGO Mustang GT

바퀴 질 수 있는 바퀴 2벌과 포드 레이싱카 드라이버 미니 피겨, 드라이버 헬멧, 렌치, 타이밍 보드 등이 포함된 레고 머스탱 GT. 2만3900원

3 Built Ford Tough Rover Cooler

이동식 아이스 쿨러. 원격 제어로 움직일 수 있다. 헤드라이트까지 장착해 밤에 캠핑할 때도 요긴하다. 409.95달러

4 #MustangUnites International Poster

머스탱 로고와 각 나라의 국기를 조합해 디자인한 포스터. 한정판으로 생산한 제품으로 머스탱 마니아라면 욕심낼 만하다. 16.99달러

5 Mustang GT Pedal Kart

스포티한 휠이 매력적인 페달 카트. 옐로 컬러 머스탱 GT의 디자인을 접목했다. 스티어링 휠과 시트는 조절 가능. 599.00달러

6 Flip-It BBQ Spatula

즐거운 바비큐 파티를 완성해줄 스테인리스 스파츨러. 핸들은 단풍나무로 만들어 한층 고급스럽다. 병뚜껑까지 달려 있어 유용한 아이템. 36.95달러

7 Diamond Plate Beanbag Game

다이아몬드 패턴을 새긴 플레이트의 구멍에 콩 주머니를 던져 넣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아이템. 여섯 개의 콩 주머니와 이동 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캐리백도 포함되어 있다. 199.95달러

8 Bean Bag Chair

프리미엄 코튼 원단의 빈백 체어. 폴리스티렌 충전재가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자세를 잡아준다.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사용이 편리하도록 견고하게 만들었다. 124.99달러

My Sweet Terreno

스패니시 요리를 파인 다이닝으로 즐길 수 있는 흔치 않은 곳이다. 텃밭에서 갓 수확한 식자재로 요리한다. 건강한 자연을 담되, 셰프의 개성과 감각이 살아 있는 접시를 내놓는다. 떼레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다.

Editor 강미라 Photographer 심주호 Cooperation 떼레노(02-332-5525)

TORTA DE BACALAO CON TRUFA NEGRA Y FILO

염장대구, 블랙 트러플과 필로 시트

스페인 전통식 염장대구 요리는 다소 무거운 편이지만 가볍게 풀어냈다. 필로 시트를 살짝 들어내면 탱글탱글하면서 촉촉한 대구 살이 보석처럼 숨어 있다.

PATO CON ZANAHORIA Y QUINOA PERUNA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와 오렌지 당근 푸레, 페루산 키누아

텃밭에서 직접 키운 향이 진한 로즈메리와 함께 구운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 블루베리 소스, 오렌지와 당근 푸레, 바삭한 식감의 퀴노아가 환상적 조화를 이룬다.





SUFLE DE PLATANO Y HELADO DE PRALINÉ

바나나 수플레와 헤이즐넛 프랄린 아이스크림

한 입 떠먹으면 입에서 사르르 녹은 수플레. 바나나 향이 입안을 몽근하게 채운다. 차가운 헤이즐넛 프랄린 아이스크림을 따뜻한 수플레에 얹어 먹으면 맛이 그만이다.

신승환 셰프

식자재 본연의 맛과 향을 살린 스페니시 요리를 고즈넉한 북촌에서 즐길 수 있는 떼레노. 화려함에 치중하기보다 자연주의, 단순함, 내실을 강조하는 접시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철학 덕분에 코릿(Koreat)이 선정한 TOP 50 레스토랑 중 유일한 스페니시 레스토랑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아시아 이주 여성과 국내 취약 계층 청년들을 요리사로 키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레스토랑이기도 하다. 이토록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곳의 주방을 책임지는 신승환 셰프를 만났다.

Q 요리의 영감은 주로 어디서 얻는가.

A 떼레노는 스페인어로 '땅, 토양, 대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이름처럼 재료 본연의 특색을 고스란히 담아낸 자연주의 요리를 선보인다. 레스토랑 옥상에는 40여 평의 텃밭이 있다. 요리에 쓰이는 채소나 허브는 직접 키워서 쓴다. 철마다 수확하는 식자재를 통해 요리에 대한 영감을 가장 많이 얻는다. 완두나 오이가 자라는 모습을 본떠 플레이팅을 한 경우도 있었다.

Q 텃밭 이야기를 할 때 유난히 즐거워 보인다.

A 요즘 떼레노의 텃밭에서는 아미란스, 로즈메리, 브로콜리, 파, 당근, 감자, 오이, 다홍채 등이 난다.

화확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키운다. 벌레가 생겨도 다 손으로 잡는다. 작물마다 재배법도 다르고, 우리나라에 없는 작물들은 외서를 보고 공부도 해야 하는 등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 것이 워낙 재밌다. 스페인의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산지에서 직송하는 재료 외 대부분의 것은 너른 텃밭에서 바로바로 구해 쓰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떼레노 역시 신선하고 질 좋은 재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다.

Q 스페인 요리를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A 외할머니가 요정, 일식당, 갈빗집 등을 오래 하셨다.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요리가 친숙하고 자연스러웠다.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중·고등학교는 미국에서

다녔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쿠킹 클래스를 들으며 취미로 요리를 하다 한국, 호주, 스페인, 태국, 네덜 등 세계 각국의 레스토랑에서 일했다. 스페인 요리는 10여 년 전 두바이에서 일하면서 매력을 느끼게 됐다. 스페니시와 유럽 지중해 요리를 하던 레스토랑이었다. 스페인 요리는 사실 흔히 아는 유럽 음식과 극명하게 경계가 나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스페인이라도 지역에 따라 언어나 식생활이 조금씩 다르다. 스페인 요리 자체에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것. 그만큼 흥미롭다. 한식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 매운맛이라든가, 쌀과 고추, 마늘 같은 재료를 쓴다는 점이 그렇다.

Q 요리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A 다양한 나라의 키친을 거치며 경험한 사람과 문화, 테크닉이 떼레노의 접시 위에도 녹아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화려하기보다 단순하지만 자연스럽고, 내실 있는 요리를 하려고 한다.

Q 셰프로써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

A 거창한 것은 없다. 묵묵하고 조용하게, 하지만 재미있게 꾸준히 요리하는 것이다. 아주 작은 재료라도 이를 구하는 것부터 요리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내 손으로 직접 하려고 한다. 그리고 고객에게 이를 기쁘게 소개하고 싶다.



바다, 그 푸른 매력 속으로 스킨스쿠버다이빙

오색 빛깔 물고기가 살랑살랑 지느러미를 흔들고 아름다운 산호초가 눈길을 끈다. 바닷속 푸른 세상을 탐험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즐기는 휴가도 좋지만, 너무 익숙해서 조금은 지루했던 것도 사실. 새로운 모험을 찾아, 울어름엔 바닷속을 탐험해보자.

Editor 차승진



스킨다이빙과 스쿠버다이빙, 어떻게 다를까?

높은 습도와 끈적이는 더위의 계절, 올해도 역시 여름이 돌아왔다. 그러나 여름은 바다의 계절이기도 하다. 잠시 복잡다단한 일상을 잊고 시원한 바다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온갖 스트레스와 잡념이 확 사라지기도 하니 말이다. 바라만 봐도 좋은 바다지만, 바다의 진정한 매력을 누리고 싶다면 가까이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용기가 필요하다. 바로 스킨스쿠버다이빙(Skin-Scuba Diving)이다. 스킨스쿠버다이빙은 스킨다이빙(Skin Diving)과 스쿠버다이빙(Scuba Diving)으로 나뉜다. 먼저 스킨다이빙은 일명 '스노클링'으로 알려진 다이빙으로, 수영만큼이나 역사가 오래됐다. 수중 마스크와 핀(오리발) 그리고 스노클만 준비하면 된다. 스킨다이빙은 스노클의 대롱을 통해 호흡하는 방식이기에 수면 근처에서 한정된 시간 동안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반면 스쿠버다이빙은 공기탱크를 메고 물속 깊이 들어가 바닷속을 유영하는 레포츠다. 우리가 흔히 '스킨스쿠버'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일치한다.

체계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스쿠버다이빙

바닷속을 탐험하는 스쿠버다이빙을 제대로 그리고 안전하게 즐기려면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비 사용 등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레포츠이므로 반드시 자격을 갖춘 강사에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뒤 바다로 나가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PADI, BSAC, SSI, NAUI, TDI/SDI 등 여러 단체에서 다이빙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단체별로 특징이 조금씩 다르니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을 찾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뒤따른다. 일반적으로 스쿠버다이빙 교육은 크게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 : 물속 안전교육 육지와 바닷속은 환경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압력이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을 배우는 물속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퀄라이징 교육'이다. 바닷물에 깊이 들어갈수록 압력이 높아지는데 이는 귀의 고막에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귀에 압력이 느껴질 때마다 코를 막고 귀에 숨을 불어넣는 '이퀄라이징'을 해야 한다. 물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올 때도 유의해야 한다. 갑자기 급하게 물 밖으로 올라갈 경우 혈관 속 기포가 급격히 팽창해 기흉(폐가 찢기라든 현상)이나 공기전색증(공기가 뇌혈관을 막는 증상) 등 위급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물에서 나올 땐 1분에 9m의 속력으로 천천히 올라와야 한다.

2단계 : 실내 수영장 실습실내 수영장에서 이퀄라이징 실습과 물속에서 호흡기가 빠졌을 때의 대응법 등을 배운다. 안전과 직결되므로 위급 상황에서도 신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한다.

3단계 : 해양 실습해양 실습은 바다와 조류, 압력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다. 스쿠버다이빙 규정상 잠수는 항상 2인 1조로 이뤄진다. 만약 강사나 파트너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그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스쿠버다이빙 자격증

스쿠버다이빙에는 자격 제도가 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인증 개념으로, 바다에 들어간 횟수와 간단한 필기시험으로 각 단계의 자격을 준다. 자격증을 따야 장비를 대여할 수 있으므로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은 필수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스쿠버다이빙 교육기관인 PADI를 기준으로 자격 제도를 정리하면, 초급 단계는 오픈 워터 다이버(Open Water Diver)다. 오픈 워터 다이버가 되려면 다이빙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스킬 교육, 해양 실습 등을 거쳐야 한다. 이후 다이빙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어드밴스 다이버(Advance Diver), 레스큐 다이버(Rescue Diver), 마스터 다이버(Master Diver)로 나뉜다.

tip

기본 장비

- 1. 다이빙 슈트** : 몸이 바다에 뜰 수 있게 돕고 체온을 유지해주는 잠수복
- 2. 수경, 스노클, 핀(오리발)** : 물속에서 원활한 시야 확보를 위해서는 수경이 필요하다. 또 긴 대롱 형태의 스노클은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다. 핀은 물속에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력을 만들어준다.
- 3. 공기탱크** :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를 고압으로 압축해서 저장하는 통
- 4. 부력 조절기** : 구명조끼와 비슷하게 생긴 형태로 공기를 넣었다 빼는 장치. 입수하기 전 공기를 넣어 물에 떠 있다가 잠수를 하게 되면 공기를 빼면서 물에 서서히 들어간다.
- 5. 레귤레이터** : 공기탱크 속 공기를 입까지 보내주는 장비

다이빙 포인트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좋은 다이빙 포인트가 많다. 특히 제주도는 베스트 다이빙 포인트로 인기가 많다.

- 1. 고성 LF문암리조트 금강산 포인트** : 일명 '수중 금강산'이라 불리는 포인트. 수심 최고 25~30m 지점에 거대한 바위로 형성돼 있다. 말미잘과 명게, 산호가 바위 전체를 덮고 있어 볼거리가 풍성하다.
- 2. 양양 팀스쿠버 조도 아치 포인트** : 최대 수심 16m로 초보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없다. 쥐래미, 배도라치, 전복, 오징어, 복어 등 여러 어종을 쉽게 만날 수 있다.
- 3. 제주도 성산리조트 자리여 포인트** : 열대성 어류가 다양한, 바다 자연경관이 잘 보존돼 있다. 지역 수심은 최고 30m
- 4. 제주도 새끼섬 난파선 포인트** : 초보자보다는 상급자에게 적합한 포인트로 대형 어종이 많다.
- 5. 울진 무어해저 오봉 포인트** : 다섯 개의 산봉우리로 둘러싸인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 수심은 5~10m로 초보자가 꼭 가봐야 할 곳으로 꼽힌다.

해슬리 나인브릿지

Platinum Course of The World

여주에 자리한 해슬리 나인브릿지는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골프 코스를 자랑한다. 동서양 문화가 녹아든, 예술적 가치가 높은
골프 클럽으로 세계에서 인정한 해슬리 나인브릿지를 찾았다.
Editor 김민정 Cooperation 해슬리 나인브릿지(031-887-9900)



골프와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

국내 골프장에 최초로 클럽 문화를 도입한 해슬리 나인브릿지는 철저한 프라이빗 회원 관리와 클럽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정통 클럽 문화’를 선도한다. 해슬리 나인브릿지라는 이름은 클럽이 위치한 경기도 여주 지역의 ‘해가 솟는 마을’이라는 의미의 ‘해승리’를 부르기 쉽게 붙인 것이다. 햇볕이 잘 드는 양지바른 곳에 웅장하게 들어선 클럽하우스는 국내 건축물 최초로 목구조로 만들어 자연친화적 디자인이 돋보인다. 건축가 윤경식과 반 시게루(Ban Shigeru)가 공동 설계했다. 스위스 구조 전문가 헤르만 블루머(Hermann Blumer)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나무 기둥 형태의 팀버 스트럭처(Timber Structure)라는 정교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클럽하우스 로비에 들어서면 우리의 전통 소품인 족부인 패턴을 이미지화해 동서양의 미를 접목한 나무 기둥이 천장까지 이어진다. 천장은 얇게 자른 나무를 격자무늬로 이어 완성했다. 덥고 습한 날씨에 꺼안고 자면 시원해지는 족부인처럼 격자무늬 사이로 공기가 드나든다. ‘동양과 서양을 골프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은 클럽하우스의 천장은 BBC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장 TOP 10’에 뽑히기도 했다. BBC는 ‘가벼운 형태의 이 천장은 시(詩)적인 영감을 준다’고 밝혔다.

천상의 시그너처 홀

해슬리는 18홀 모두 독특한 시그너처 코스로 되어 있다. 완벽한 유형별 조합으로 만들어 도전과 다양성이 이끌어내는 라운드를 제공하는 코스는 제주 나인브릿지를 세계 100대 골프장에 올려놓은 데이비드 데일(David Dale)이 맡았다. 모든 홀의 그린과 티그라운드에는 최첨단 장치인 서버에어(공기 통풍 장치)와 하이드로닉스(온도 조절 장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서버에어는 그린 아래 유해 가스와 물을 제거해 그린 상태를 언제나 최상으로 유지해주는 기능이다. 또 티그라운드에서 페어웨이, 그린까지 모든 홀에 벤트 그라스를 식재해 한층 고급스럽다. 이 모든 것이 최상의 코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해슬리 나인브릿지는 국내 타 클럽에서 가능하지 않은 카트의 페어웨이 진입을 허용한다. 회원이 아니면 입장할 수 없는 정통 프라이빗 클럽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누구라도 한 번쯤은 경험하고 싶어 하는 코스가 바로 이곳이다.

모방할 수 없는 차별화된 가치

경기도 여주 해슬리 나인브릿지가 ‘세계 100대 플래티넘 코스’ 31위에 선정됐다. 미국의 존 시발드 협회(John Sibbald Associates)에 의해 선정되는 플래티넘 클럽은 전 세계 골프&컨트리클럽 중 클럽 문화와 운영 면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은 100곳의 골프장을 말한다. 해슬리 나인브릿지는 2013년 한국 골프장으로는 최초로 플래티넘 클럽에 오른 데 이어 올해 2회 연속 선정됐다. 플래티넘 클럽의 6가지 선정 기준은 회원의 우수성, 클럽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스태프의 전문적인 역량 및 서비스 수준, 우수한 시설, 국제 골프 규정의 준수, 국제 인지도 및 국제화 등이다. 해슬리 나인브릿지는 철저한 회원 중심 운영을 통한 회원 간 친목 도모 등 우수한 클럽 문화와 운영, 회원의 품격, 그리고 해외 컨설턴트와의 체계적 클럽 운영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판세를 뒤엎는 스피치, 말이 곧 무기다

광장 중앙에 선 소크라테스부터 SNS를 하는 현대인 아무개에 이르기까지 스피치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입 아프다. 프레젠테이션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통할 수 있는 마음을 얻는 스피치의 기술을 정리해보았다.

Editor 정예진 참고 서적 《김미경의 아트 스피치》, 21세기북스

청중을 흥내 내는 것이 곧 벽을 허무는 것

스타 CEO들의 스피치 선생으로 유명한 김미경은 이렇게 말한다. '청중은 강사와 마주하는 순간 무엇으로든 동질감을 갖기를 원한다.' 충청도 청중을 만나면 일부러 충청도 사투리를 섞어 쓰고, 송년회 자리에 참석해 스피치를 할 때는 우선 드레스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한다. 보수적인 모임에서는 보수적으로 입는 등 모임의 분위기를 최대한 고려한다. 아이들을 만나면 잠시 권위를 내려놓고 아이들과 비슷한 말투로 다가간다. 이렇게 해서라도 청중과 동질감을 가지려는 이유는 뭘까? 청중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만 힘들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듣는 사람 역시 노동이다. 그들을 위해 우선은 비슷한 무게감으로 동질감을 얻고 청중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음악의 요소를 끌어들이면 쉬워진다

마음이 끌리는 노래를 듣다 보면 강약을 적절히 조절해 그에 맞춰 마음이 움직인다. 편하게 듣다가도

격정적으로 치달고 이내 다시 감동을 느끼게 된다. 스피치도 마찬가지다. 같은 이야기도 문장의 한 부분을 강하게 혹은 약하게 말하면 집중도는 훨씬 올라가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크고 강하게 말하는 부분이 항상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러게 말하는 것에 사람들은 더욱 귀 기울인다. 강조해야 할 부분은 일부러 여러게 말해보자. 청중은 계속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에는 금방 적응하고 잠들어버린다. '누구야,(강하게), 이거 너무 맛있다(여리게)'라고 말하는 것. 이렇게 강약을 주는 것이 바로 김미경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피치의 기술이다.

마음을 사로잡는 에피소드로 요리하기

아무리 격조 높은 자리라도 청중은 어려운 단어와 권위 있는 문장에 부담을 느끼게 마련이다. 탄탄한 논리만 받쳐준다면 아무리 사소한 에피소드라도 힘을 실어준다. 그 대신 남이 겪은 일, 어디서 들은 일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내가 겪은 일을 마치 방금 생각난

듯 생생하게 얘기하는 것, 그것이 청중을 사로잡는다. 성공적인 스피치를 하고 싶다면 평상시 주변을 관찰하고 특징을 메모해두었다가 적절한 때 에피소드로 활용하자. 청중의 집중력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tip

질문으로 청중을 사로잡는 법

프레젠테이션 시 청중에게 질문을 하면 참여도와 호응도는 더욱 높아진다. 하지만 청중을 당황시키는 질문은 금물. 청중과 가까워질 수 있는 다음의 질문법을 활용해보자.

- 1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특징인을 지목해 질문하라.
- 2 최대한 대답하기 쉬운 질문을 준비하라.
- 3 먼저 질문을 한 다음 특징인을 주목해 준비할 시간을 주자.
- 4 질문을 한 뒤 강연자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로 답변한다.
- 5 청중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미리 준비해 청중을 참여시켜라.
- 6 최대한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질문하라.

참고 서적 《사람을 얻는 질문법 38》, 원앤원북스

Ford Dealer News

Editor 김민정



선인자동차, 일산 전시장·서비스센터 오픈

기존 포드 일산 전시장 부지에 일반 정비 시설과 최첨단 판금 도색 시설을 완비한 서비스센터를 추가, 전시장과 서비스센터가 통합된 형태로 증축됐다. 판매부터 서비스, 정비 공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3S 서비스(Sales, Service, Spare Parts) 형태로 고객 편의를 위한 진정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증축 오픈한 포드 일산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는 지하 1층을 포함해 총 5층 규모로, 전체 면적은 3372㎡에 달한다. 1층과 2층에는 전시 공간, 상담실, 서비스센터, 고객 접수실, 고객 라운지 등의 편의 시설이 들어서 고객 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1층 외부에는 일반 워크베이 8개가 설치되었으며, 3층과 4층에는 판금과 도장 부스를 마련해 일반 경정비부터 중정비까지 모든 범위의 정비 서비스가 가능하다. 경기 북부 지역의 정비 서비스 능력을 확충할 교두보 역할을 할 일산 지역은 물론 인근 김포,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인자동차, 수원삼성 블루윙즈 축구단 공식 후원

포드코리아 공식 딜러사인 선인자동차가 수원삼성 블루윙즈 축구단의 공식 후원사가 됐다. 이와 더불어 수원월드컵 경기장 내에 LED 보드 광고를 하고 있다. 포드 브랜드 이미지 제고, 선인자동차 기업 인지도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광고하며, 경기장 관중 1만6000여 명과 TV 중계 시청자 280만여 명을 타깃으로해 높은 광고 효과가 기대된다. 광고를 통해서도 유럽 포드의 디젤을 탑재한 몬데오, 쿡가, 포커스의 홍보 영상도 확인할 수 있다.



Ford News

Editor 김민정



‘2016 포드·링컨 챌린지 컨퍼런스’ 개최

포드코리아는 지난 2월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16 포드·링컨 챌린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각 부문에서 가장 훌륭한 성과를 거둔 직원을 포상하고, 2016년 한 해의 세일즈 및 마케팅 전략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포드·링컨 공식 판매 딜러사인 선인자동차, 프리미어모터스, 헤인모터스, 이한모터스 및 더파크모터스의 세일즈 컨설턴트 및 포드코리아 임직원 등 총 39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신차, 기술 및 서비스 등 다방면에 걸쳐 심층적인 교육 기회를 모든 포드·링컨 세일즈 컨설턴트에게 제공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포드코리아의 공격적 마케팅과 높은 성장세 유지를 다짐했다. 포드코리아 정재희 대표는 이날 격려사를 통해 “포드는 9년 연속 성장 및 4년 연속 두 자리 성장률을 달성하며 건강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단지 우수한 자동차를 넘어서 작은 노력 하나, 작은 서비스 하나도 고객에게 맞춘 포드, 링컨의 특별한 경험을 고객에게 선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포드 디젤 전국 시승 이벤트’ 개최

포드 디젤 삼총사 몬데오, 포커스, 쿠가 디젤 차량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포드 디젤 전국 시승 이벤트’를 실시했다.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5주간의 주말 동안 전국 23개 포드 전시장에서 진행한 이번 이벤트로 포드 디젤엔진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2016년에도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기반을 확립했다. 시승 이벤트 차량인 중형 디젤 세단 몬데오와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포커스 디젤, 포드코리아 최초의 디젤 SUV인 쿠가는 포드 유럽의 최첨단 디젤엔진 기술이 적용되어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와 파워, 동급 최상의 안전 및 편의 장비를 갖춘 모델들이다. 5주간 9회에 걸쳐 펼쳐진 이번 시승 이벤트는 사전 예약제로 진행됐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했으며, 어린 자녀를 동반한 고객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다. 전시장 안에는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해 가족 단위 고객도 많았다. 포드코리아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전개해 포드 디젤 모델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노력할 것이다.



모바일 가이드 ‘포드 오너스앱’ 출시

포드코리아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고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모바일 가이드 ‘포드 오너스앱’을 출시한다. ‘포드 오너스앱’은 포드 브랜드와 차량에 관한 정보가 담긴 모바일 가이드로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고 쉽게 포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포드의 전국 31개 전시장과 27개 서비스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를 빠르게 알려주는 ‘전시장 및 서비스 센터 찾기’와 고객 불편이나 민원의 빠른 해결을 위한 고객센터 전화연결 기능과 24시간 ‘고객지원 및 긴급출동 서비스’, 문제점을 한눈에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체크리스트 및 대시보드 경고등’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보다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나갈 예정이다.



60개월 무이자 할부, ‘포드 3 디젤 파이낸셜 프로모션’ 실시

포드코리아는 6월 말까지 포드 파이낸셜 서비스를 이용해 몬데오, 포커스, 쿠가 포드 디젤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포드 3 디젤 파이낸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포드 파이낸셜 서비스를 이용해 포드의 디젤 차량인 몬데오, 포커스, 쿠가를 구입하는 고객을 위해 60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한다. 선납금 40%를 지불한 후 60개월간 이자 없이 월 할부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구매 가능하다. 해당 조건 적용 시 몬데오 월 30만원대 후반(트렌드 기준), 포커스 30만원대 초반, 쿠가 30만원대 후반(트렌드 기준)으로 월 할부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포드 파이낸셜 서비스를 이용해 포드(머스탱 제외) 또는 링컨 차량을 구매한 모든 고객은 신차 교환 서비스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차량 구입 후 1년 이내에 파손율 30% 이상 및 고객 과실 50% 이하의 자동차 보험이 적용된 사고의 경우, 차량당 1회에 한해 동일 모델 신차로 교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포드 전시장이나 서비스센터에 문의할 것.

Ford Line Up

*제원은 2016년 5월 기준



2016 MONDEO

(신연비 방정식 적용)

	Trend	Titanium
엔진형식	2.0L 듀라토크 TDCi 디젤엔진	2.0L 듀라토크 TDCi 디젤엔진
트랜스미션	파워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파워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997	1,997
최대 출력(ps/rpm)	180/3,500	180/3,500
최대 토크(kg·m/rpm)	40.8/2,000	40.8/2,000
구동 방식	FWD	FWD
승차 정원(명)	5	5
전장X전폭X전고(mm)	4,870X1,850X1,490	4,870X1,850X1,490
공차 중량(kg)	1,678	1,678
복합 연비(km/L)	15.6(2등급)	15.6(2등급)
도심 연비(km/L)	14.2	14.2
고속도로 연비(km/L)	17.5	17.5
CO ₂ (g/km)	121	121

TAURUS

(신연비 방정식 적용)

	2.0 SEL/2.0 Limited	SHO
엔진 형식	직렬4기통 2.0L 에코부스트 엔진	V6 3.5L 에코부스트 엔진
트랜스미션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999	3,496
최대 출력(ps/rpm)	243/5,500	370/5,500
최대 토크(kg·m/rpm)	37.3/3,000	48.4/3,500
구동 방식	FWD	AWD
승차 정원(명)	5	5
전장X전폭X전고(mm)	5,155X1,935X1,545	5,155X1,935X1,545
공차 중량(kg)	1,890	2,020
복합 연비(km/L)	9.8(4등급)	7.9(5등급)
도심 연비(km/L)	8.5	6.7
고속도로 연비(km/L)	12.0	10.0
CO ₂ (g/km)	174	219



2016 MUSTANG

(신연비 방정식 적용)

	2.3 EcoBoost	GT 5.0 V8
엔진형식	2.3L 에코부스트 I-4 엔진	5.0L Ti-Vct V8 엔진
트랜스미션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2,261	4,951
최대 출력(ps/rpm)	314/5,500 (Coupe, Convertible)	422/6,500 (Coupe, Convertible)
최대 토크(kg·m/rpm)	44.3/3,000 (Coupe, Convertible)	54.1/4,250 (Coupe, Convertible)
구동 방식	RWD	RWD
승차 정원(명)	4	4
전장X전폭X전고(mm)	4,780X1,915X1,380(Coupe), 4,780X1,915X1,390(Convertible)	4,780X1,915X1,380(Coupe), 4,780X1,915X1,390(Convertible)
공차 중량(kg)	1,680(Coupe), 1,725(Convertible)	1,750(Coupe), 1,795(Convertible)
복합 연비(km/L)	9.1(5등급)	7.3(5등급)
도심 연비(km/L)	7.7	6.1
고속도로 연비(km/L)	11.6	9.7
CO ₂ (g/km)	185	232



2016 KUGA

(신연비 방정식 적용)

	Trend	Titanium
엔진 형식	2.0L 듀라토크 TDCi 디젤엔진	2.0L 듀라토크 TDCi 디젤엔진
트랜스미션	파워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파워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997	1,997
최대 출력(ps/rpm)	180/3,500	180/3,500
최대 토크(kg·m/rpm)	40.8/2,000	40.8/2,000
구동 방식	인텔리전트 AWD	인텔리전트 AWD
승차 정원(명)	5	5
전장X전폭X전고(mm)	4,525X1,840X1,690	4,525X1,840X1,690
공차 중량(kg)	1,860	1,860
복합 연비(km/L)	13.0(3등급)	13.0(3등급)
도심 연비(km/L)	12.0	12.0
고속도로 연비(km/L)	14.6	14.6
CO ₂ (g/km)	146	146

2016 FOCUS

	Titanium(4DR/5DR)	Titanium Plus(4DR/5DR)
엔진형식	1.5L 듀라토크 TDCi 디젤엔진	1.5L 듀라토크 TDCi 디젤엔진
트랜스미션	파워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파워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499	1,499
최대 출력(ps/rpm)	120/3,600	120/3,600
최대 토크(kg·m/rpm)	27.53/2,000	27.53/2,000
구동방식	FWD	FWD
승차 정원(명)	5	5
전장X전폭X전고(mm)	4,540X1,825X1,465(4DR), 4,360X1,825X1,465(5DR)	
공차 중량(kg)	1,470	1,470
복합 연비(km/L)	18.1(1등급)	18.0(1등급)
도심 연비(km/L)	16.4	15.9
고속도로 연비(km/L)	20.8	21.5
CO ₂ (g/km)	105	103

*오토 스타트/스톱이 없는 모델은 신연비 방정식을 적용했습니다.
*오토 스타트/스톱 기능은 Titanium Plus 모델의 기본 사양이며 Titanium 모델의 선택 사양입니다.

2016 EXPLORER

(신연비 방정식 적용)

	2.3L EcoBoost	3.5L Ti-VCT V6
엔진형식	2.3L 에코부스트 엔진	3.5L Ti-VCT V6 엔진
트랜스미션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2,261	3,496
최대 출력(ps/rpm)	274/5,500	294/6,500
최대 토크(kg·m/rpm)	41.5/2,500	35.3/4,000
구동 방식	인텔리전트 4WD	인텔리전트 4WD
승차 정원(명)	7	7
전장X전폭X전고(mm)	5,040X1,995X1,775	5,040X1,995X1,775
공차 중량(kg)	2,195	2,240
복합 연비(km/L)	7.9(5등급)	7.6(5등급)
도심 연비(km/L)	6.8	6.6
고속도로 연비(km/L)	9.8	9.4
CO ₂ (g/km)	215	227



*위 연비는 표준 모드에 의한 연비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 온도에 따라 실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Ford Network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서울 11개의
전시장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31개의
포드 공식 전시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와 공식 딜러는 전국
각지에 정비공장 및 쿼서비스센터도 함께
운영하는 등 고객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트웍크 2016년 5월 기준



SHOWROOM

서울	대치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3 일동빌딩 1층	02-3442-2300
	신사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03	02-3444-1300
	서초 전시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79	02-535-3800
	미아 전시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67 동일하이빌뉴시티 1층	02-6355-1000
	노원 전시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5 인산빌딩 1층	02-6226-1000
	동대문 전시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283	02-2246-2100
	강서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84	02-2063-6300
	송파 전시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18 포드빌딩	02-6928-3000
	방배 전시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32 장산빌딩 1층	02-6929-3000
	영등포 전시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02-6941-3000
경기	마포 전시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9	02-6420-1000
	일산 전시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14	031-913-2200
	수원 전시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3	031-221-7600
	분당 전시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81	031-714-2004
	평촌 전시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0	031-425-2212
	구리 전시장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8 한화생명빌딩 1층	031-8034-1000
	의정부 전시장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722	031-822-1000
인천	인천 전시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화대로 257	032-832-0001
대전	대전 전시장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50	042-823-2000
충남	천안 전시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66	041-562-0007
부산	부산 수영 전시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58	051-758-0075
	부산 해운대 전시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5로 55 센텀Q	051-741-5114
울산	울산 전시장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28	052-261-3388
경남	창원 전시장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79-2	055-715-5000
대구	대구 전시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9	053-766-2000
경북	포항 전시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337	054-285-8899
광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226	062-515-1010
전북	전주 전시장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유통로 29-8	063-273-0005
강원	원주 전시장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320	033-762-0040
	강릉 전시장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255번길 31	033-646-2300
제주	제주 전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515	064-759-9888

SERVICE

서울	강북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283	02-2216-1100
	강서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84	02-3661-0011
	신사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03	02-3444-1304
	서초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89	02-536-5150
	송파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18 포드빌딩	02-2039-3001
	북부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277-4	02-6370-1000
	용산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4	02-6177-1000
경기	분당 서비스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81	031-701-7004
	일산 서비스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14	031-901-2888
	수원 서비스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3	031-237-6340
	평촌 서비스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0	031-360-1500
	의정부 서비스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722	031-8030-1000
인천	인천 간석 서비스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염전로 417	032-863-6080
	인천 구월 서비스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55	032-471-6080
대전	대전 서비스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624	042-226-7707
충남	천안 서비스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66	041-563-0009
부산	부산 수영 서비스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62-9	051-758-0046
	부산 사상 서비스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932	051-715-2000
경남	창원 서비스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79-2	055-715-3003
울산	울산 서비스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28	070-8897-4840
대구	동대구 서비스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55길 22	053-963-0011
	대구 수성 서비스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9	053-766-0755
광주	광주 서비스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226	062-515-1020
전북	전주 서비스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유통로 29-8	063-252-5400
강원	원주 서비스센터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320	033-762-0041
	강릉 지정 서비스센터	강원도 강릉시 울곡로 2642	033-641-9213
제주	제주 서비스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남로 7	064-759-1472

Life slows down in flip flops



ECCO INTRINSIC TØFFEL

느긋하고 따사로운 여름 시즌과의 완벽한 매치

#partofmyworld

롯데 본점 •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 롯데 강남점 • 롯데 부산점 • 롯데 전주점 • 신세계 본점 • 신세계 강남점 • 신세계 센텀시티점 • 신세계 경기점
현대 본점 • 현대 무역센터점 • 현대 목동점 • 현대 천호점 • 현대 미아점 • 현대 판교점 • 현대 대구점 •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 두산면세점

ecco[®]
kr.ecco.com ECCO Korea 031- 628 - 4800

INTRODUCING 2016 NEW KUGA 디젤



유럽에서 탄생한 Dynamic & Smart SUV

2.0 TDCi 디젤 엔진 | 인텔리전트 AWD | 핸즈-프리 테일 게이트 | 자동 주차 지원 시스템

신사 02)3444-1300	대치 02)3442-2300	서초 02)535-3800	방배 02)6929-3000	송파 02)6928-3000	노원 02)6226-1000
마포 02)6420-1000	미아 02)6355-1000	강서 02)2063-6300	동대문 02)2246-2100	영등포 02)6941-3000	구리 031)8034-1000
의정부 031)822-1000	분당 031)714-2004	일산 031)913-2200	수원 031)221-7600	평촌 031)425-2212	인천 032)832-0001
강릉 033)646-2300	원주 033)762-0040	대전 042)823-2000	천안 041)562-0007	전주 063)273-0005	광주 062)515-1010
대구 053)766-2000	포항 054)285-8899	부산수영 051)758-0075	부산해운대 051)741-5114	울산 052)261-3388	창원 055)715-5000
제주 064)759-9888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2016 NEW KUGA 배기량 1,997cc, 공차중량 1,860kg, 자동 6단, 복합연비 13.0km/ℓ (도시연비 12.0km/ℓ, 고속도로연비 14.6km/ℓ), 3등급, 복합 CO₂ 배출량 146g/km
최근 강화된 연비측정방법으로 인해 연비가 하향되었으며, 기존 방식에 따른 연비는 복합 13.5km/ℓ, 도시 12.4km/ℓ, 고속도로 15.1km/ℓ입니다.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Go Further

ford-korea.com